

#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5년 5월호

- ◆ 이슈 분석: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기실태조사 결과
- ◆ 산업분석: 한국형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중국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 ◆ 산업정책해설: 중국제조 2025
- ◆ 산업 동향 분석
  - 3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5%대로 폭락
  - 관방치는 현상 유지, 민간치는 계속 하락세
- ◆ 산업단신
  - 중국 지역별 1/4분기 경제지표 발표
  - 중국, 중앙국유기업에 대해 대규모 재편 추진
  - 징진지 통합발전규획 통과, 부동산·건설·환경산업 수혜
  - 4대 자유무역구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5월 8일부터 실시
- ◆ 특별기고: 중국 의료시장의 발전 추이와 한국의 진출 기회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韓國産業研究院北京代表處)

연락처: 北京 Tel 010-8237-8633, Fax 010-8237-8663

인터넷전화(한국) 070-8837-3212; E-mail: [kietcn@naver.com](mailto: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www.china.go.kr](http://www.china.go.kr))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기실태조사 결과 - 2015년 1분기 현황 및 2분기 전망 -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

## 1. 조사 개요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산업별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KIET)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설문 조사(제1차)를 실시
  - 중국 진출 비중이 높은 7개 업종의 약 24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내용으로는 해당 업체의 시황관, 경영 실적, 판매, 비용, 경영 여건 등과 경영애로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항목별 지수는 통상적인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
- 조사 기간은 2015년 2월 26일 ~ 3월 30일이고,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2015년 1분기 경기 현황 및 2015년 2분기 경기 전망에 대하여 설문

## □ 조사 방법 및 범위

- 조사 방식은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산업연구원(KIET)의 온라인 설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되, 전화나 팩스 등 대체 수단을 통하여 수집한 응답 정보들도 현지에서 당 연구원의 설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분석
- 본 설문 조사는 기업 활동의 변화 방향만을 조사하는 판단 조사로서 각 설문은 ① 증가(좋음), ② 불변(보통), ③ 감소(나쁨) 등 3 scale로 구성되고, 응답 결과는 아래의 계산 식에 따라 0~200 사이의 값으로 산출

$$BSI = \frac{(\text{긍정적 응답업체 수} - \text{부정적 응답업체 수})}{\text{전체 응답업체 수}} \times 100 + 100$$

- 본 조사의 경기실사지수(BSI)는 타 기관의 방식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응답(증가/좋음)과 부정적인 응답(감소/나쁨)의 비중 차이로 산출
- 따라서 지수가 100을 초과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

### □ 응답 업체 표본의 구성

-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안배, 기업 정보가 충분한 50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패널기업 DB를 구축
  - 이번 조사에 최종적으로 응답한 기업 수는 총 240개
- 조사 결과 분석에 이용된 응답 업체들의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구성은 <표 1>과 같음.

**표 1**    응답 업체 표본의 업종별 구성

산업	응답 비중(%)
전기전자	17.9
자동차	14.2
금속기계	13.8
화학	15.0
섬유의류	12.5
기타 제조업	12.9
유통업	13.8
총 계	100.0
제조업	86.3
비제조업	13.8
대기업	22.1
중소기업	77.9

- 응답 업체의 구성비는 전기전자(17.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학(15.0%), 자동차(14.2%), 금속기계(13.8%), 유통업(13.8%), 기타제조(12.9%),

섬유의류(12.5%) 등의 순서로 분포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77.9%, 대기업이 22.1%를 차지

## 2. 전체 기업 및 기업규모별 경기

□ 2015. 1분기 현황 :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영업환경 악화

		현황 BSI (2015. 1분기)				전망 BSI (2015. 2분기)			
		전체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 실적	시황	77	77	74	78	116	114	119	115
	매출액	75	73	74	76	133	134	136	133
	경상이익	67	66	60	68	116	115	123	114
판매	현지판매	81	80	68	84	136	138	138	135
	한국재판매	73	73	57	79	110	106	119	107
	제3국판매	85	82	74	89	110	107	108	111
비용	인건비	150	149	136	155	167	170	174	165
	원자재구입	111	111	90	118	141	142	142	141
	설비투자	114	113	120	112	121	121	136	116
경영 여건	영업환경	64	64	66	64	88	86	96	85
	자금조달	78	77	89	75	85	84	94	82
	제도정책	78	73	75	79	80	75	77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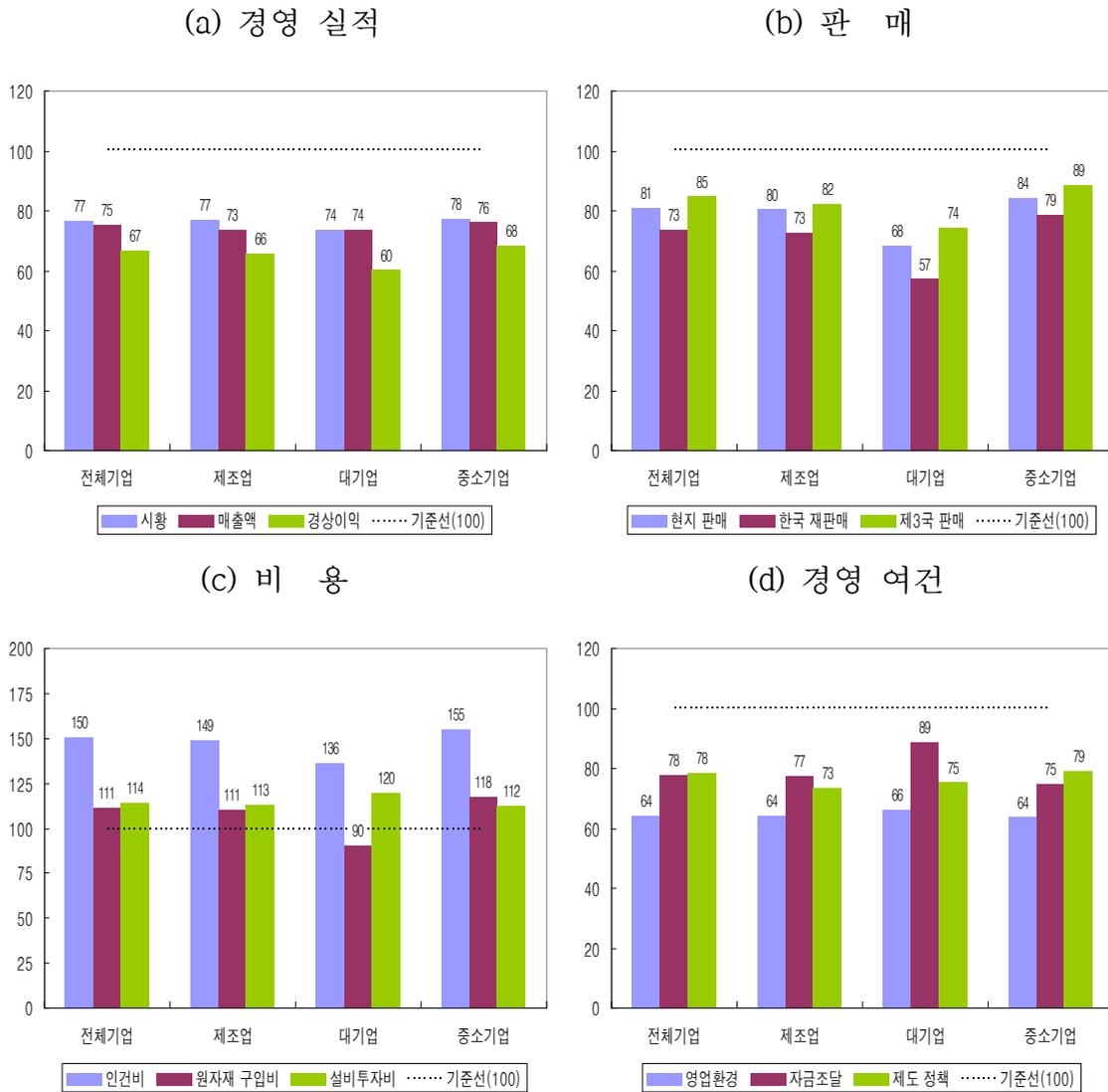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2015년 1분기 경영 실적은 모두 기준선(100)을 하회하여 부진

- 설문 대상 전체 기업들의 1분기 경영 실적은 시황 77, 매출 75, 경상이익 67로서 전반적으로 부진
- 판매는 특히 한국재판매(73)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비용은 인건비(150)가 크게 상승, 영업환경(64)도 상당히 악화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매출 74)과 중소기업(76)이 모두 부진, 특히 대기업의 경영 실적이 약간 더 부진

- 중소기업은 판매 부진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비용에서 인건비(155)와 원자재구입(118) 부담이 더욱 가중

**그림 1** 전체 기업과 기업규모별 현황 BSI (2015. 1분기 기준)



□ 2015. 2분기 전망 : 매출 반등, 현지판매 증가, 비용 전 부문 확대

○ 2015년 2분기 경영 실적은 모두 기준선(100)을 웃돌아 반등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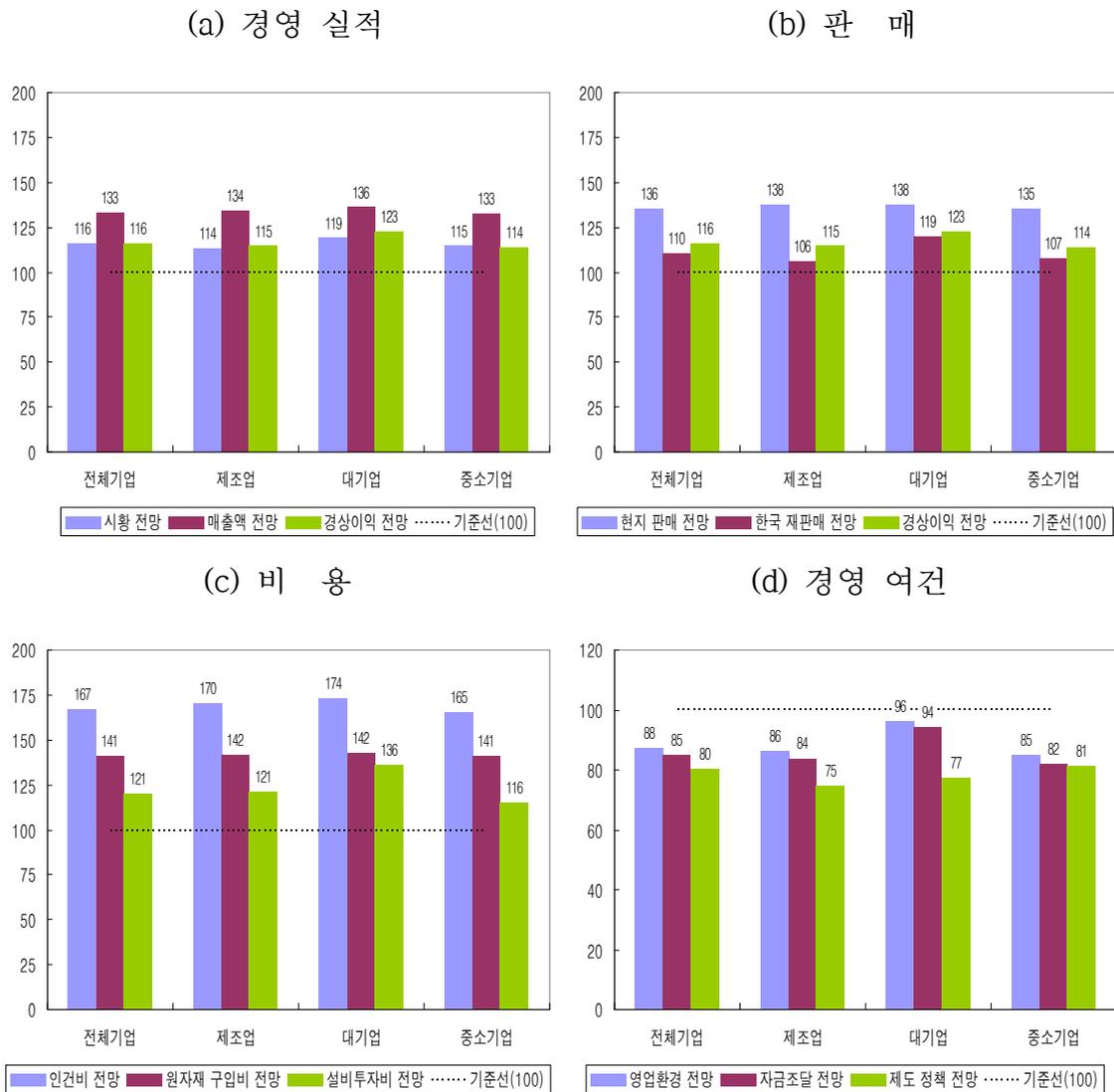
- 전체 기업들 대상으로 시황(116)이 1분기보다 긍정적, 매출(133)과 경상이익(116)도 1분기보다 대비 증가를 예상

- 판매는 현지판매(136)가 상당폭 증가하고, 비용은 전 부문에서 확대 전망, 경영 여건의 부진은 다소 완화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매출 136)이 중소기업(133)보다 실적 반등 기대감이 좀 더 우세

- 대기업은 현지판매(138)와 한국재판매(119), 중소기업은 현지판매(135)와 제3국판매(111)에서 좀 더 뚜렷한 증가를 기대

**그림 2** 전체 기업과 기업규모별 전망 BSI (2015. 2분기 기준)



### 3. 주요 업종별 경기

#### (1) 전체 업종 개관

□ 2015. 1분기 현황 : 전 업종 매출 감소, 특히 화학·섬유 부진,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양호

- 매출액 기준으로 모든 업종이 기준선(100)을 하회, 특히 화학(58)과 경공업(섬유의류 63, 기타제조 65)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진
  - 반면에 자동차(94)는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모습이며, 전기전자(88)와 유통업(88)도 전체 기업(75)을 상회

□ 2015. 2분기 전망 : 자동차 및 화학 중심으로 매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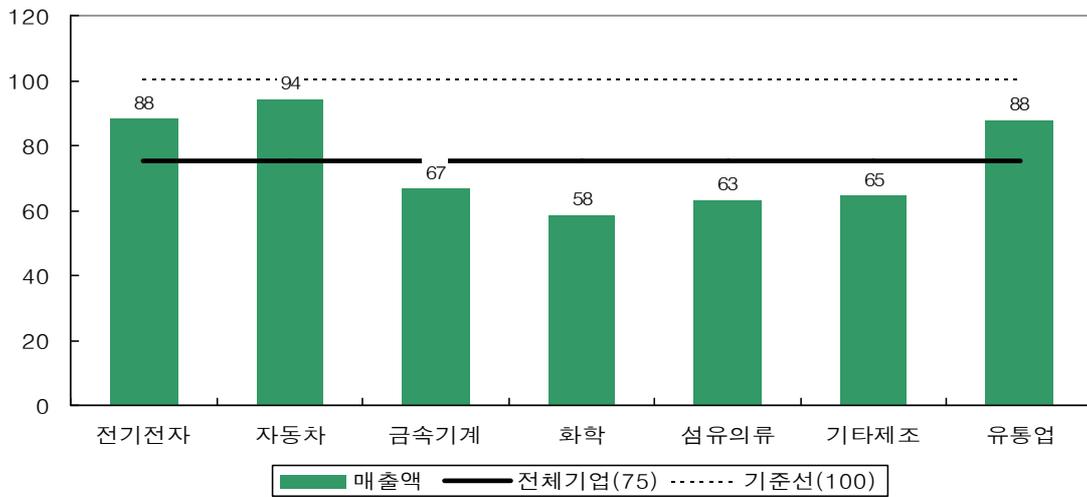
- 모든 업종이 매출 증가를 기대, 특히 자동차(156)와 화학(147)에서 좀 더 뚜렷한 증가세를 예상
  - 섬유의류(110)와 기타제조(116) 등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경상이익의 감소(각각 80과 97)를 우려<sup>1)</sup>

**표 3** 주요 업종별 경영 실적 관련 현황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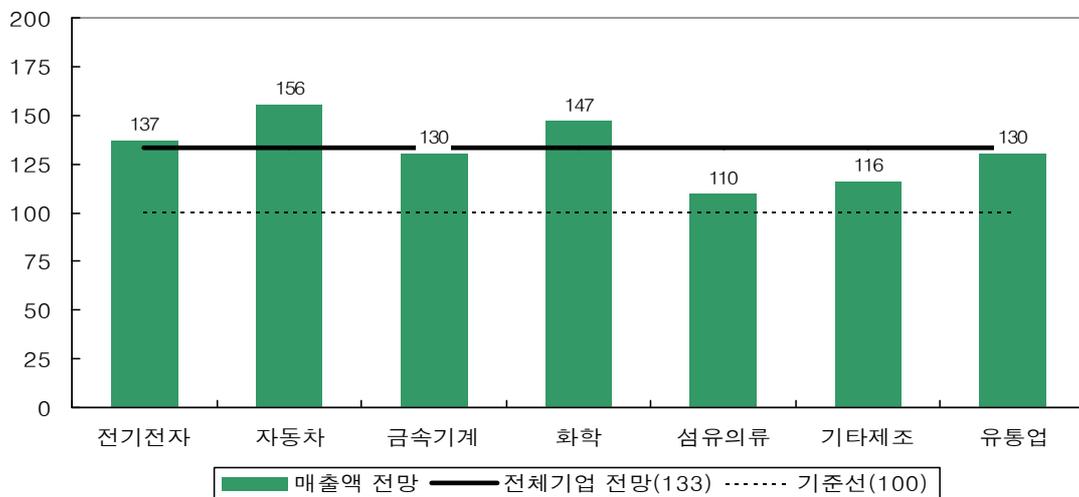
	현황 BSI (2015. 1분기)			전망 BSI (2015. 2분기)		
	시황	매출액	경상이익	시황	매출액	경상이익
전체 기업	77	75	67	116	133	116
전기전자	84	88	74	121	137	121
자동차	91	94	97	129	156	132
금속기계	55	67	48	91	130	112
화학	78	58	56	133	147	139
섬유의류	80	63	53	90	110	80
기타제조	71	65	61	110	116	97
유통업	76	88	73	130	130	121

1) 일부 업종들의 경우 시황과 매출 전망의 불일치가 관찰되는 바, 두 지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실제 경기를 잘 반영하는지는 추가적인 시계열의 확보 후에 판단이 가능(시황은 업종 전체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판단, 매출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

**그림 3** 주요 업종별 매출액 현황 BSI (2015. 1분기 기준)



**그림 4** 주요 업종별 매출액 전망 BSI (2015. 2분기 기준)



## (2) 전기전자

### □ 2015. 1분기 현황 : 제3국판매 보합, 영업환경 악화

- 판매는 제3국판매(100)만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 비용은 특히 인건비(130)가 현저히 상승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51)과 자금조달(74)에서 크게 악화

### □ 2015. 2분기 전망 : 판매 전 부문 증가, 경영 여건 부진 완화

○ 판매는 현지판매(132) 등 전 부문의 증가를, 비용은 인건비(174)와 원자재 구입(138) 부담의 가중을 예상

- 경영 여건 전망은 전체 기업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

**표 4** 전기전자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88	13	137	4
판 매	현지판매	79	-2	132	-4
	한국재판매	74	1	115	5
	제3국판매	100	15	107	-3
비 용	인건비	130	-20	174	7
	원자재구입	105	-6	138	-3
	설비투자	107	-7	115	-6
경영 여건	영업환경	51	-13	86	-2
	자금조달	74	-4	79	-6
	제도정책	81	3	70	-10

### (3) 자동차

#### □ 2015. 1분기 현황 : 현지판매 소폭 증가, 영업환경 개선

○ 판매는 현지판매(103)가 소폭 증가, 비용은 인건비(144)와 설비투자(138) 중심으로 확대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112)와 자금조달(97)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

#### □ 2015. 2분기 전망 : 현지판매 크게 증가, 경영 여건 다소 개선

○ 판매는 현지판매(161)가 크게 더욱 크게 증가, 비용은 인건비(171) 등 전 부문에서 확대를 예상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115)과 자금조달(106)에서 개선을 기대

**표 5** 자동차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94	19	156	23
판 매	현지판매	103	22	161	25
	한국재판매	76	3	117	7
	제3국판매	88	3	117	7
비 용	인건비	144	-6	171	4
	원자재구입	112	1	135	-6
	설비투자	138	24	136	15
경영 여건	영업환경	112	48	115	27
	자금조달	97	19	106	21
	제도정책	74	-4	85	5

**(4) 금속기계**

**□ 2015. 1분기 현황 : 제3국판매 소폭 증가, 경영 여건 크게 악화**

○ 판매는 제3국판매(105)가 소폭 증가, 비용은 인건비(173)가 크게 상승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42)과 자금조달(58) 등에서 현저히 악화

**표 6** 금속기계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67	-8	130	-3
판 매	현지판매	71	-10	123	-13
	한국재판매	67	-6	91	-19
	제3국판매	105	20	128	18
비 용	인건비	173	23	173	6
	원자재구입	103	-8	139	-2
	설비투자	107	-7	111	-10
경영 여건	영업환경	42	-22	55	-33
	자금조달	58	-20	64	-21
	제도정책	67	-11	64	-16

**□ 2015. 2분기 전망 : 한국재판매 감소 지속, 경영 여건 개선 난망**

○ 판매는 한국재판매(91)의 감소 추이가 지속, 비용은 인건비(173)와 원자재 구입(139) 부담의 가중을 우려

- 경영 여건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

## (5) 화학

### □ 2015. 1분기 현황 : 판매 전 부문 감소, 경영 여건 악화

○ 판매는 현지판매(61) 등 전 부문에서 상당폭 감소, 비용은 인건비(151) 중심으로 확대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72)과 제도 정책(75) 등에서 악화

### □ 2015. 2분기 전망 : 판매 전 부문 증가, 경영 여건 다소 개선

○ 판매는 현지판매(144) 등 전 부문에서 증가, 비용은 인건비(174)와 원자재 구입(161) 등에서 확대 예상

- 경영 여건은 특히 영업환경(111)의 현저한 개선을 기대

표 7 화학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58	-17	147	14
판 매	현지판매	61	-20	144	8
	한국재판매	78	5	106	-4
	제3국판매	71	-14	127	17
비 용	인건비	151	1	174	7
	원자재구입	107	-4	161	20
	설비투자	107	-7	121	0
경영 여건	영업환경	72	8	111	23
	자금조달	89	11	100	15
	제도정책	75	-3	81	1

## (6) 섬유류

### □ 2015. 1분기 현황 : 판매 전 부문 감소, 영업환경 크게 악화

○ 판매는 제3국판매(63) 등 전분기 대비 상당폭 감소, 비용은 인건비(137)와 원자재구입(113)에서 확대

- 경영 여건은 영업환경(47)이 전분기보다 크게 악화

### □ 2015. 2분기 전망 : 제3국판매 감소 지속, 경영 여건 개선 난망

○ 판매는 제3국판매(96)의 감소 추이가 지속, 비용은 인건비(157)의 현저한 상승을 우려

- 경영 여건은 전 부문에서 개선 가능성이 희박

**표 8** 섬유류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63	-12	110	-23
판 매	현지판매	72	-9	120	-16
	한국재판매	71	-2	105	-5
	제3국판매	63	-22	96	-14
비 용	인건비	137	-13	157	-10
	원자재구입	113	2	110	-31
	설비투자	96	-18	100	-21
경영 여건	영업환경	47	-17	63	-25
	자금조달	73	-5	70	-15
	제도정책	73	-5	67	-13

## (7) 유통업

### □ 2015. 1분기 현황 : 제3국판매 소폭 증가, 제도 정책 다소 개선

○ 판매는 제3국판매(106)만이 소폭 증가, 비용은 인건비(159)와 설비투자(125)

중심으로 확대

- 경영 여건은 제도 정책(109)이 전분기보다 약간 개선

#### □ 2015. 2분기 전망 : 판매 전 부문 증가, 제도 정책 개선 지속

- 판매는 한국재판매(144) 등 전 부문에서 증가, 비용도 인건비(147) 등 전 부문의 확대 지속을 예상

- 경영 여건은 제도 정책(115)의 개선 지속을 기대

표 9 유통업 부문의 현황 및 전망 BSI

		2015. 1분기		2015. 2분기	
		현황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전망 BSI	전체 기업과의 차이(pt)
경영 실적	매출액	88	13	130	-3
판 매	현지판매	85	4	123	-13
	한국재판매	80	7	144	34
	제3국판매	106	21	129	19
비 용	인건비	159	9	147	-20
	원자재구입	117	6	138	-3
	설비투자	125	11	115	-6
경영 여건	영업환경	64	0	94	6
	자금조달	82	4	91	6
	제도정책	109	31	115	35

#### 4. 경영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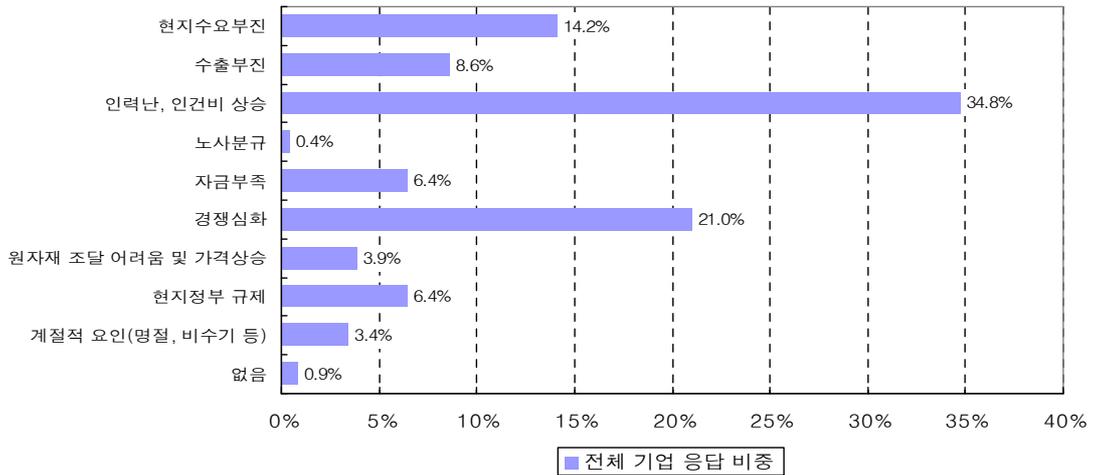
##### □ 인력난/인건비 상승 > 경쟁 심화 > 현지수요 부진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34.8%)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이어서 경쟁 심화(21.0%)와 현지수요 부진(14.2%) 등의 순서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인력난/인건비 상승(52.0%)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

- 중소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30.1%)을 비롯해 경쟁 심화(23.0%)와 현지 수요 부진(16.4%)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

**그림 5**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2015. 1분기 현재)



#### □ 전기전자·경공업 인력난/인건비 상승, 자동차는 경쟁 심화 등 심각

- 대다수 업종들이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노동 집약 성격이 강한 경공업에서 심각
  -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은 섬유 의류(53.3%)와 기타제조(50.0%)에서 가장 많이 응답, 전기전자(37.2%)에서도 적지 않게 응답
  - 자동차에서는 경쟁 심화(41.2%), 금속기계는 현지수요 부진(32.4%)의 어려움을 각각 많이 응답
  - 화학의 경우 인력난/인건비 상승(28.6%)과 경쟁 심화(28.6%)를, 유통업에서는 경쟁 심화(30.0%)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

**표 10**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경영애로사항(2015. 1분기 현재; 단위 : %)

		현지 수요 부진	수 출 부 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노 사 분 규	자 금 부 족	경 쟁 심 화	원자재 조달난 /가격 상승	현지 정부 규제	계절적 요인	없 음	총계
전체 기업		14.2	8.6	34.8	0.4	6.4	21.0	3.9	6.4	3.4	0.9	100.0
제조업		14.3	7.4	36.5	0.5	7.4	19.7	4.4	6.9	3.0	-	100.0
기업 규모 별	대기업	6.0	10.0	52.0	-	6.0	14.0	4.0	4.0	4.0	-	100.0
	중소기 업	16.4	8.2	30.1	0.5	6.6	23.0	3.8	7.1	3.3	1.1	100.0
업 종 별	전기전 자	20.9	7.0	37.2	-	11.6	14.0	7.0	2.3	-	-	100.0
	자동차	5.9	2.9	32.4	-	5.9	41.2	11.8	-	-	-	100.0
	금속기 계	32.3	3.2	19.4	-	12.9	12.9	-	16.1	3.2	-	100.0
	화 학	17.1	2.9	28.6	-	8.6	28.6	-	11.4	2.9	-	100.0
	섬유의 류	3.3	16.7	53.3	-	-	13.3	-	3.3	10.0	-	100.0
	기타제 조	3.3	13.3	50.0	3.3	3.3	6.7	6.7	10.0	3.3	-	100.0
	유통업	13.3	16.7	23.3	-	-	30.0	-	3.3	6.7	6.7	100.0



## 한국형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중국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신성장산업연구실 연구원 정혜린

### □ 맞춤형 웰니스케어: IT융합 의료기기 신산업

- 지난 3월 산업부와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중 하나로 ‘맞춤형 웰니스케어’를 선정
  - 정부가 정의한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개념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S/W, 콘텐츠, ICT 등의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유전체정보 등이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가진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서비스’
- 맞춤형 웰니스케어는 u-, m-, e-헬스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정책은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사회적 건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 사회적 민감분야인 원격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은 대상에서 일단 배제
- 웰니스케어 시스템은 웰니스기기와 웰니스서비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웰니스기기에는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포함
  - 웰니스기기는 운동량, 체중, 식이정보 등 개인의 라이프로그(Lifelog)부터 혈당, 혈압, 심박수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기기

- 웰니스서비스는 웰니스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치료 후 사후관리 등 ICT기반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림 1 웰니스케어 시스템 구성



웰니스기기

웰니스서비스

자료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자료

### □ 맞춤형 웰니스케어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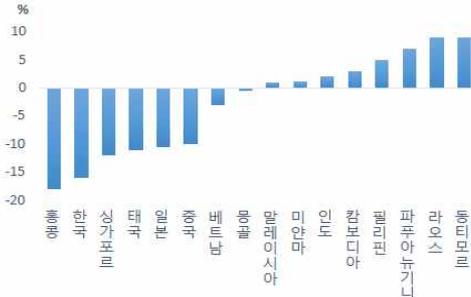
- 기술초기 맞춤형 웰니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피트니스 및 건강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생체신호측정 정확도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수요층이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로 확대되는 추세
  - 서비스 수요층이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로 확대되어 국가 보건의료비 및 간접비용 절감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인구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까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15% 이상, 중국은 약 10% 감소 전망<sup>2)</sup>
  - 중국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근로자가 만성질환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36억 일로, 이는 전체 근로일의 65%에 육박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2) World Bank(2015), "Adjusting to a Changing World"

## 에도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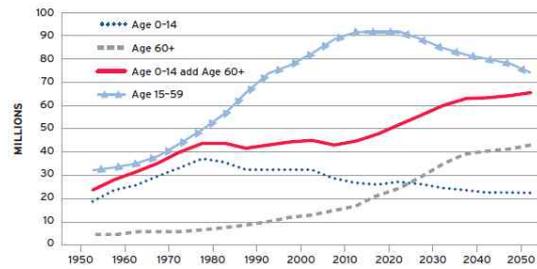
**그림 2** 세계적 인구고령화 추이

아태국가 노동가능인구 비중변화 전망  
(2010 ~ 2040년)



자료 : World Bank(2015)

중국의 인구고령화 전망(1950 ~ 2050년)



자료 : Brookings 연구소(2014)

○ 맞춤형 웰니스케어 도입은 다양한 연구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및 국민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

-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성과에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외래진료비, 입원율, 합병증 발병률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 각 요인을 최대 50% 감소시키면 5년간(2014~2018년) 2조원의 관련 의료비 절감 가능<sup>3)</sup>
-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원격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환자의 병증개선 효과를 입증

**표 1** 모바일헬스케어 효과 연구

질병	지역	연구주제	연구결과
당뇨병	미국	퇴원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환자마다 총비용의 42% 절감
고혈압	미국	원격기술로 전자 의료기록에 생체 신호를 전송	발병기간을 지연시키고 의사대면횟수를 71%로 줄임
심장마비	유럽	페이스메이커 인체 삽입 후 원격 모니터링	입원기간 35%, 외래진료시간 10% 감축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캐나다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입원율 50% 감축

자료 : 2015년 한국의료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참고

3) 최윤희·정혜린(2015), “모바일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E-KIET 산업경제정보, Vol. 609.

○ 따라서 선진국은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국민의 고령화 및 건강 이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추진중

- 미국은 헬스케어 전용주파수(2.36~2.4GHz)를 지정하여 선제적인 제도정비로 기술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EU, 일본 등에서도 헬스케어 주파수가 지정<sup>4)</sup>

**표 2**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정부 추진정책 및 사업

국가	정부 추진정책 및 사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확대 법안 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추진</li> <li>· 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해 필수 임상예방서비스 보험화, 개인 맞춤형 예방 플랜 서비스 제공</li> <li>·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10년 단위로 국가적 종합 정책 발표</li> <li>· Medicare:노인의료보험제도에서 원격의료에 보험급여 제공</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Japan2015’ :인간중심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건강 등에 ICT활용 전략 수립</li> <li>· 거택개호서비스: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고령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시행</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Innovation with Services’ 주요 과제로 고령화 대응서비스 개발에 282억원 투입, 13개 과제 지원</li> <li>· 영국:개인의 건강요약기록을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NHS CRS(Care Records Service) 정책 시행</li> <li>· 영국: ‘Telecare Project’ 가정 내 무선망을 이용해 만성질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현재 170만 명이 이용</li> </ul>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5.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TSA홈페이지 참조 (<http://www.telecare.org.uk>)

**□ 한국, 관계부처별 협의를 통해 상용화를 위한 발판 마련 계획 발표**

○ 맞춤형 웰니스케어가 나오기 전에는 u-헬스케어, 스마트케어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

- 2010년 지식경제부가 SKT, LGT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과 IT, BT를 접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창출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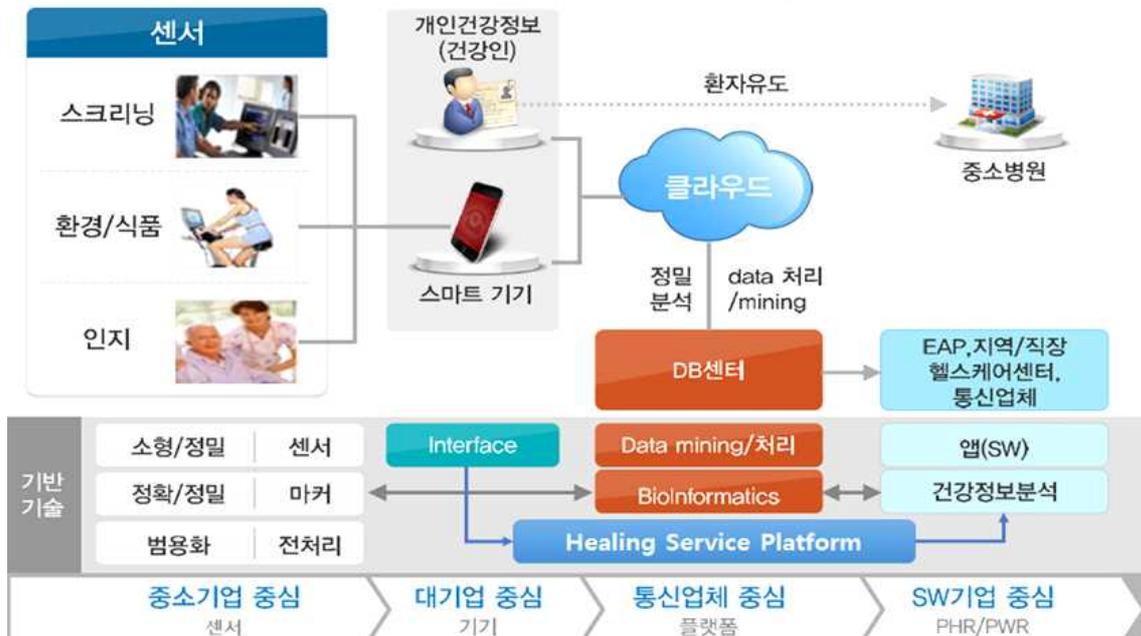
- 그러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제약 등 선제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의료기기의 센싱기

4) 이성주(2013), “의료 수요자와 유헬스”, TTA Journal, Vol.145.

술, 유효 데이터 분석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는 한계<sup>5)</sup>

- 지난 3월 발표한 산업부와 미래부의 맞춤형 웰니스케어 발전전략에 따르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할 계획
  - 이번 발전 전략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웰니스케어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3**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생태계



자료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자료

- 금년 5월 6일에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헬스케어를 비롯한 융합산업의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 안정성을 검증하고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목표로 제시<sup>6)</sup>

- 헬스케어 활성화협의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를 구성하여 범부

5)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2013),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

6)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2015) 브리핑 자료

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반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

- 2015년 75억 원 규모예산을 투입하여 대구에 중증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애프터-케어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 □ 국내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의 장애요인은 사회적 반발과 수요부족

- 정부주도적 기술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격진료를 포함하지 않은 국내 내수시장만으로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만한 수요가 부족

- 신산업은 충분한 초기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는 수요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아직까지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수익 구조가 크게 미흡

- 추진중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범위 내에서는 단기간에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

- 범위가 원격진료로 확대되어 보험수가 적용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시장성장의 기회가 발생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기득권층의 반대와 정보보안 등 사회적 우려로 원격의료가 국내에 도입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내수시장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 우선 진출을 고려

- 해외시장 진출 상대국으로는 병원시설 및 의사가 부족하고 기득권층이 없어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강한 중국이 최적의 수출국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보건상품 수출의 주요 교역파트너이며, 의료기기분

야에서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2위

- 꾸준히 양국 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성장률이 27.3%로, 2014년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

**표 3** 對중국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2010-14)
수출	139.6	179.5	315.8	357.4	366.6	27.3
수입	323.2	374.7	378.0	389.4	432.3	7.5
무역수지	-183.6	-195.2	-62.2	-32.0	-65.7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우리나라의 대중국 보건상품 교역현황 및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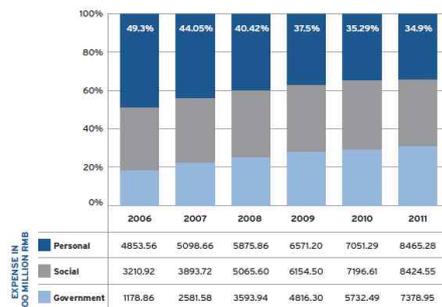
□ 중국 정부도 고령화 및 고소득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비용 급증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정

**그림 4** 중국의 만성질환 발생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

중국 만성질환 발생 비중 추이(%)

연도	심장병	소화기 질환	뇌혈관 질환	암	관절염	당뇨병
2008	17.6	24.5	9.7	2.0	10.2	10.7
2009	18.3	24.2	9.6	2.4	11	11.7
2010	18.5	24.3	9.5	2.0	10.5	11.9
2011	18.9	23.8	10.2	2.2	11.6	12.4

중국의 의료비 증가(2006 ~ 2011)



자료: Brookings 연구소(2014)

○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국인들의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중국건강관리 시스템에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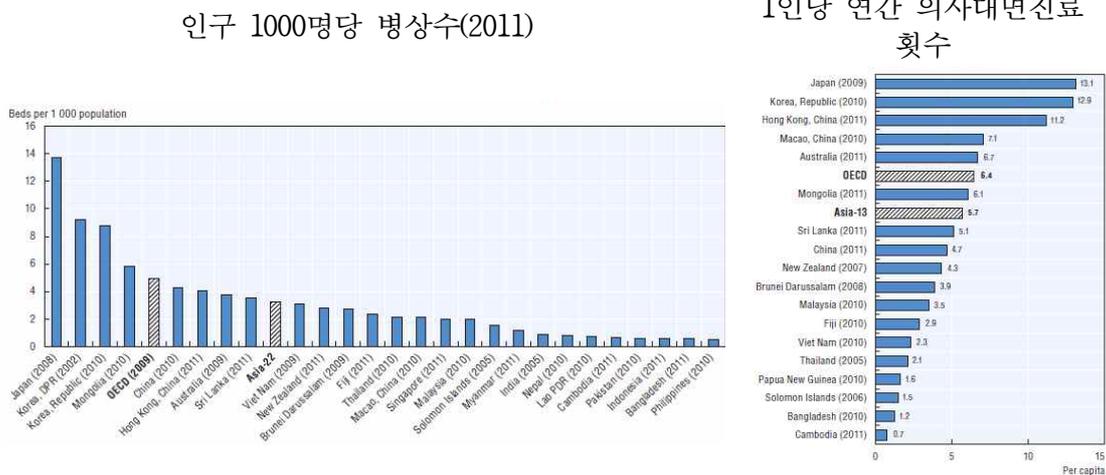
- 매년 2억 6천만 명이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며 중국내 사망자 중 85%가 암, 뇌혈관장애,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는 만성질환 예방 정책인 “Chinese Chronic Disease Prevention Work Plan(2012-2015)” 를 도입하여,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기 활용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 중

○ 그러나 여전히 2011년 중국의 의료비용은 GDP의 5.15%(2.4조 위안)이며, 중국의 경우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35~50%로 너무 큼.

### □ 중국의 의료인프라는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크게 미흡

그림 5 중국의 의료인프라 현황



자료: OECD&WHO(2012),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 중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적고, 일본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인당 의사대면진료 횟수는 연간 4.7회로 우리나라와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 중국에서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3급 병원수가 전국적으로 1,787개 소(2013년 기준)에 불과해 일반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이 매우 어려우며, 병원의 등급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큼.

○ 따라서 중국정부는 기존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롭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정임.

- 중국은 의사들의 수도 적고 임금이 낮아 뇌물수수와 진료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그림 6 중국의 의료기관 유형



자료: 중국위생통계연감; 2015년 한국의료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에서 재인용

## □ 중국 정부는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및 제도 개혁을 시행 중

-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을 목표로 지속적인 의료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음.

- 국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기존 의료시스템을 전반을 개혁'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의료서비스인 '원격진료를 위한 제도를 신설 및 개정'

- 의료보험, 공립병원 개혁을 시행하고, 의료보건 시스템 정비, 민간 비영리 병원의 대외 개방 등을 통해 기존 국가 의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

- 2013년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분야를 해외 자본에 개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기업의 참여가 인정된 분야는 해외 기업에 모두 개방하겠다는 방침으로 의료기관 설립에도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2013년 하반기에는 '요양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과 '건강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

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2014년 저장(浙江)성은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하였고, 개정 4개월 후에는 저장성의 Ningbo(寧波)시에서 시범적으로 ‘지혜의원’ 7)이라는 앱을 제작 및 보급하여 서비스를 운영
- 전국적으로는 12.5 계획 국가 정보화 로드맵에 따라 ‘지역 헬스케어 정보 네트워크’ 8)를 구축하여 의료기관별로 분산된 중국 국민의 진료기록을 일원화 관리9)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

**그림 7 중국의 의료서비스 및 헬스케어 관련 추진 정책**

2009년	2012년	2013년	2015년
<b>2009-11년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 심화 실시 방안</b> - 기본 의료보장제도 및 약품제도 구축 - 일선 의료보건 시스템 완비 - 기본 공공 위생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공립 병원 개혁 시범시행 추진	<b>12.5 계획 기간 의약위생체제 개혁 및 실시방안</b> - 민간자본의 국립병원 개혁 참여 허용 - 민간 비영립 병원 설립 독려 - 2015년까지 비국립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량이 전체의 20%이상 되도록 함	<b>건강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b> -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b>2015년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와 의료체계 개혁안</b> - 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인상 적극 시행 - 의료보험 보조금 19% 인상, 중국내 의료종사자 임금인상 - 시골지역 의사 수 증원 방안
<b>국립병원 시범개혁 의견</b> - 의료보험 규정, 연구개발, 재교육 등에서 비국립병원을 공공병원과 동등하게 처우	<b>헬스케어산업 발전 촉진 의견</b> - 헬스케어 분야 최초의 국가차원 발전 계획 - 2020년까지 국민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도모	<b>저장성: 원격의료 조항 신설</b> <b>닝보시: ‘지혜의원’ 앱 제작 및 보급</b>	
2010년	2013년	2014년	

자료 : 각종 매체 및 신문기사 내용 종합

### □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헬스케어 관련 기술수준 비교

- 중국 대부분 기업이 생산하는 의료기기는 미들/로엔드 제품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화웨이, 샤오미 등 IT기기 제조기업들이 의료기기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현상이며,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수준은 최첨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우수 IT기업과의 기술적 제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7) 상하이 인근의 항구도시인 Ningbo시는 동루안그룹과 협력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00여개 의원의 협조 하에 모바일을 통한 진료예약, 진찰결과, 건강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 중  
 8) 지역 헬스케어 정보 네트워크(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Network, RHIN)는 중국 중앙 정부 및 각 성과 시 정부의 3단계 관리 체제하에 운영되는 통합전자 의료기록 및 전자 보건기록 시스템으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 정보 저장 및 공유 프레임워크를 구성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세계 5개국의 ICT기반 헬스케어 정책 사례”, 동향보고서

**표 4** 주요국의 중점기술별 궁극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 분야	201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의료정보시스템/u-Health 기술	65.0	76.1	62.9	41.2	62.7
차세대 자동화 의료기기 기술	47.0	68.6	58.7	42.4	57.2
차세대 생체계측 및 체외 진단 기기 개발 기술	65.8	86.3	74.0	57.0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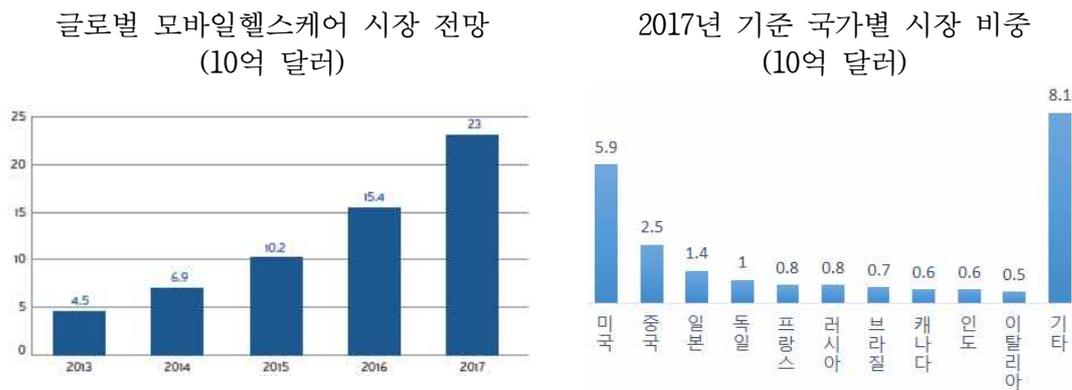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11년 11월) 기준

○ MRI, CT 등 국내 전문 의료기기분야 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IT기술이 융합된 u-헬스케어 분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기술 선도국

-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발달이 뒷받침 되면서 휴대용 진단기기 및 캡슐형 내시경 등 IT융합 제품을 출시 및 수출하고 있음.<sup>10)</sup>

**□ 발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준비된 중국 모바일헬스케어 시장**

**그림 8** 글로벌 모바일헬스케어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자료 : PwC(2013)

○ 전 세계 모바일헬스케어 시장은 2017년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미국은 59억 달러, 중국이 2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sup>11)</sup>

- 2017년 시장규모 중 분야별로는 만성질환관리 및 급성기 이후(Post acute care)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107억 달러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

10) 메디컬투데이(2015), “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비약적 성장... 휴대용 의료기기가 한몫”.

11) PwC(2013), “The global mHealth market opportunity and sustainable reimbursement models”, mHealthinsights.

망되며, 진단서비스에 대한 비중은 전체의 15%인 34억 달러를 차지

- 궁극적으로 원격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분야 시장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

○ 특히 중국시장은 정부주도형 정책 추진으로 원격진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의 모바일기기 구입 시장 규모와 소비자들의 이용 희망도가 매우 큼.

- 2014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2,000여개 이상으로 집계됨.<sup>12)</sup>
- 조사대상 중국 소비자들 중 88.6%가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85.7%가 전자의료기록 기능을 선호<sup>13)</sup>
- 중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건강 모니터링, 당뇨병, 고혈압 등에 가장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헬스케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

#### □ 중국의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과 IT융합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의 길

○ 중국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IT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한계는 IT융합기술이 발달한 한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국내기업 또한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지 유통망을 갖춘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진출하는 것이 안정적 진출모델임.
- 서비스모델이 아닌 의료기기의 수출은 현지 기업의 카피가 빈번할 뿐 아니라, 수입 의료기기 허가에 필요한 CFDA 품질인증을 받기도 어려움.<sup>14)</sup>

12) CMPMA(2014), "China Medical Internet Development Report"

13) iiMedia(2013), "Review of China Mobile Health Market and Outlook for Future"

14) 중국 경내 생산 의료기기의 경우, 분류에 따라 시급 FDA, 성, 자치구, 직할시 FDA기관을 통과하면 등록가능

- 또한 사업 운영상에서도 세금문제와 현지 의사들과의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며, 전문 의료진단장비의 경우 현지 대리상을 통해 수입 및 납품되는 구조임.

표 5 주요 헬스케어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기업명	해외진출 사례
인포피아 <sup>15)</sup>	미국 내 U-헬스케어 전문 유통업체 EHS사와 협력하여 블루투스 혈당측정기 신제품 공급 계약 체결 EHS사가 가진 중국 지방성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
대산정보기술 <sup>16)</sup>	중국 U-헬스케어 기업인 GL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블루투스기반 스마트폰 응급시계 등 납품
SKT	SKT는 중국 의료기기업체(티엔롱사) 지분인수와 중국 심천에 R&D센터 및 메디컬센터 를 개소하여 중국시장 진출
BBB <sup>17)</sup>	심천의 헬셀러레이터에서 R&D센터 및 제조기반을 마련한 국내 스타트업기업으로 헬 셀러레이터 중개로 현지 파트너를 만나 협업할 계획
헬스커넥트	중국의 비스타 메디컬센터 <sup>18)</sup> 와 양해각서를 체결

### □ 국내 의료기관의 요양양로 병원시스템 진출 시에 동반진출도 고려

- 2014년 11월 발표된 실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양로 서비스 관련 영리 법인 설립 가능<sup>19)</sup>
  - 양로 서비스 시설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각종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 고급화된 양로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선호하므로 브랜드화 된 양로시설에 배급할 경우 수요가 보장될 수 있음.

### □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기술력 홍보 및 중국지방정부의 인허가와 관련

15) 한국경제TV(2014), “인포피아, 미국/중국 U-헬스케어 시장 공략”.  
 16) 전자신문(2014), “광주 30대 벤처 창업가 3인, 의료용 웨어러블 틈새시장 공략기”.  
 17) Platum(2015),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겠다!”  
 18) 중국 의료관련 3대 프리미엄 브랜드로 비스타 메디컬센터는 중국 내 많은 네트워크 구성  
 19)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양로서비스 기관 설립 뿐 아니라 양로기관의 규모화, 브랜드화를 적극 장려

## 시 협조 필요

-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는 검증된 중국 현지 파트너기업 풀을 구성하여 한국기업의 요청 시 최적의 파트너 기업 중개 지원
  - 한국 헬스케어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 및 인지도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사회적 공헌활동 등 이미지 제고 노력을 간접적으로 수행
- 인허가가 까다로운 의료분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
  - 중국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시/성급 FDA 허가를 받으므로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신속한 인허가 조율 지원
- 현지 파트너 뿐 아니라 진출 목적이 부합하는 국내 기업간의 해외진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국내 기업간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



## 중국제조 2025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원 강지연

### □ 중국,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발표

○ 중국 국무원은 금년 5월 18일 2025년까지 제조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sup>20)</sup>

- 중국은 향후 30년간 3단계로 나누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

○ 1단계(2015~2025년): 2020년까지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고 핵심 경쟁력을 보유, 2025년까지는 노동생산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IT와 제조업 융합<sup>21)</sup>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을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감축시킴.

-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단계로 제고(세계 제조업 2강 대열에 진입)

- 2012년 제조업종합지수를 참고하여 총 3그룹으로 분류. 제1그룹에는 미국, 제2그룹에는 독일과 일본, 제3그룹에는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을 포함시킴.

○ 2단계(2025~2035년):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제고시키고, 중국의 우위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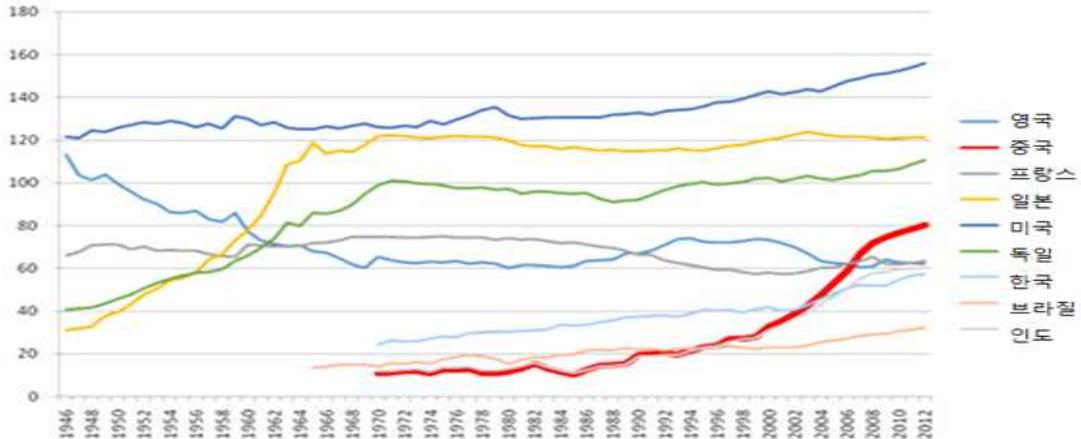
20) 國務院, 國務院關於印發《中國制造2025》的通知, 2015.5.18.

21) IT와 제조업의 융합은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2013년 8월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행동계획(2013-2018년)」을 발표하였으며 2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책을 실시함.

경쟁력을 보유(세계 제조업 제2그룹 대열중 선두에 위치)

- 3단계(2035~2045년):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세계 제조업 제1그룹으로 진입)

**그림 1** 주요국의 제조업종합지수 추이(1946-2012)



자료: 중국 공업원, 「제조강국 전략연구보고」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규모이상<sup>22)</sup>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을 2013년 0.88%에서 2025년에는 1.68%로 확대
  - 발명특허수도 2013년에는 매출 1억 위안 당 0.36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1.1건으로 증가시킬 계획
  - 규모이상 기업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 기계<sup>23)</sup> (CNC) 비중을 2013년 27%에서 2020년 50%, 2025년 64%로 확대할 계획

22) 연간 매출액 2,0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23)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e tools)는 컴퓨터 수치 제어에 의해 작동이 제어되는 공작 기계로 현재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수치 제어 장치로 내장하고 있는 자동 공작 기계가 주류를 이룸.(자료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 1 '중국제조 2025' 주요 계획지표

분류	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혁신 역량	규모이상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0.88	0.95	1.26	1.68
	규모이상 제조업체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수(건)	0.36	0.44	0.7	1.1
질적 성과	제조업 품질경쟁력 지수 <sup>1)</sup>	83.1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제고	-	-	2015년 대비 2.0%p 증가	2015년 대비 4.0%p 증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	-	7.5 <sup>2)</sup>	6.5 <sup>3)</sup>
IT 제조업 융합	인터넷 보급률 <sup>4)</sup> (%)	37	50	70	82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sup>5)</sup> (%)	52	58	72	84
	핵심공정 CNC 비중 <sup>6)</sup> (%)	27	33	50	64
친환경 성장	규모이상 기업의 산업생산량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 비율(%)	-	-	2015년 대비 18% 감축	2015년 대비 34% 감축
	산업생산량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비율(%)	-	-	2015년 대비 22% 감축	2015년 대비 40% 감축
	산업생산량 단위당 수자원 사용 감축 비율(%)	-	-	2015년 대비 23% 감축	2015년 대비 41% 감축
	공업용 고체폐기물 사용률(%)	62	65	73	79

자료: 「중국제조 2025」

- 주: 1)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평가한 경제·기술 종합지수  
 2)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중 연평균 증가율  
 3)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 연평균 증가율  
 4) 인터넷보급률은 유선 인터넷 보급률을 의미  
 유선인터넷 보급률=유선인터넷 사용 가구수/총 가구수  
 5) 디지털 R&D 설계도구 보급률=디지털 R&D 설계도구를 보유한 규모이상 기업수/총 규모이상 기업수(샘플조사 기업수: 3만 개)  
 6) 핵심공정 CNC 비중은 규모이상 기업의 핵심공정 CNC 비중의 평균치

□ 향후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10대 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포함됨.

-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전자제품산업 발전

에 필수적인 핵심 칩을 생산하여 국산 칩의 사용범위를 확대

-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 생산시스템을 개발. 로봇의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을 추진하고 로봇의 응용범위를 확대
-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항공산업 사슬을 구축. 차세대 탐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제고
-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 구축하고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수준을 제고. LNG 선박 등 최첨단선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
-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발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을 확대
-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 등을 발전
- **농업기계장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 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 **신소재:** 특수 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발전
-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영상장비 및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의 혁신성 및 상용화 수준을 제고

○ 10대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R&D 및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2025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유율 및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계획

**표 2** 10대 산업 주요 발전 계획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주요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반도체 설계 수준을 향상.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핵심설계설비를 확대. 국가정보 및 인터넷 보안 유지,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칩을 만들어 국산 칩 사용범위를 확대. 고밀도 패키징 및 3D 마이크로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여 패키징 산업 발전과 테스트 역량 강화를 도모. 핵심 제조설비를 안정적으로 공급
	정보통신	신형 PC, 초고속 인터넷, 첨단메모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개선하여 5세대 모바일통신기술, LAN 스위치기술, 초고속 대용량 스마트 광전송기술, 양자 컴퓨팅 등을 발전. 첨단서버, 대용량 메모리, 신형 LAN 스위치, 신형 스마트 단말기, 차세대 기지국, 인터넷 보안 장비 등을 개발
	OS 및 산업용 S/W	보안 관련 OS 등 산업용 S/W를 개발. 스마트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설비, 사물인터넷, 산업용 빅데이터처리 등 첨단 산업용 S/W기술을 발전. 첨단산업 S/W 플랫폼과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산업용 S/W 통합표준과 보안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 수치제어	고정밀, 고속, 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생산시스템을 개발. 고정밀 수치제어,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등 첨단기술 및 설비 R&D 강화. 고정밀 수치제어 시스템, 서보모터, 베어링, 래스터 등 주요 기능성 부품과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상용화. 사용자 프로세스 인증 역량 강화
	로봇	자동차기계·전자위험물 제조·국방·화학공업·경공업 등의 산업용 로봇과 헬스케어·가사교육엔터테인먼트 등의 특수용 로봇의 신제품 개발을 확대. 로봇의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을 추진. 로봇의 응용범위를 확대. 로봇 본체, 감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센서, 구동기 등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설계 제조 등을 발전
항공우주 장비	항공장비	대형 항공기 및 기체확장형 기종을 연구생산. 중형 헬리콥터 생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 간선 및 지선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 범용기의 상용화를 도모. 고(高)추력중장비, 첨단 터보프롭 엔진, 고(高)바이패스비 터보팬 기술을 개발. 항공기 탑재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 자체 생산이 가능한 항공산업사슬을 구축
	우주장비	차세대 탑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비행산업 경쟁력을 제고. 인공위성, 페이로드, 초고속 인터넷망 등 인프라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주요 내용
		를 구축하고 원격탐사위성, 통신, 네비게이션 등 항공정보역량을 강화. 유인 우주비행 및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우주 탐사를 실시. 우주비행기술의 상용화 및 우주기술 응용을 확대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심해탐사, 자원 개발이용, 해양 안전장비 및 시스템 발전을 추진. 해저정거장,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구축. 해양플랜트설비 테스트, 모니터링,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수준을 제고. 크루즈선 설계·건조 기술 수준 향상. LNG 선박 등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보조 장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 관련 기술을 확보
	선진 궤도교통설비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을 응용. 보안시스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디지털 및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 친환경, 스마트, 고속 대용량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 궤도교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발전. 자동차의 저탄소·정보화·스마트화 기술을 보유. 동력전지, 드라이브모터,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소재, 스마트제어 등 핵심 기술 상용화를 추진.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완성차 생산시스템을 완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점유율을 확대
	전력설비	대규모 고효율·청정 화력발전의 상용화 및 시범응용을 추진. 대용량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형 가스터빈 제조 수준을 제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 등을 발전. 고성능 전력전자부품, 고온 초전도소재 등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응용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를 추진
	농업기계장비	곡물·목화기름·설탕 등의 일반식량, 경제작물의 파종·재배·수확·운반·저장 등 주요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농업기계장비를 발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농업기계장비에 대한 정보수집, 의사결정, 정밀작업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신소재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발전. 최첨단 정련, 응고·성형기술, 기상증착, 소재가공, 고효율 합성 등 신소재 제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를 개발.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확대. 군·민용 특수신소재를 개발,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신소재산업의 군·민 융합발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주요 내용
		전을 추진. 초전도소재, 나노소재, 그래핀, 바이오 기초소재 등 전략적 최첨단소재를 개발하여 기초소재 경쟁력을 강화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예를 들어 신형 기제 및 표적치료 화학의약품, 항체의약품, ADC(항체-약물-복합체), 신형 구조단백질과 폴리펩티드의약품, 신형 백신, 중의약품(임상결과 우수제품)과 맞춤형 치료약품 등이 포함. 의료기기 혁신성 및 상용화 수준을 제고. 영상장비·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진료장비 및 혈관내 완전분해 스텐트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모품을 개발. 웨어러블, 원격 진료 등 모바일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바이오 3D 프린터, IPS(유도 다기능 줄기세포) 등 첨단기술을 개발 및 응용 확대

자료: 「중국제조 2025」

##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력을 강화

### ○ 중요 산업의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

- 국가급 혁신 시범기업 및 기업기술센터를 설립, 기업이 국가의 과학기술 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산-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연맹을 구축
- 제조업 혁신센터(산업기술연구기지)를 2020년까지 15개, 2025년까지 40개를 설립
-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생산 시스템<sup>24</sup>(IMS), 적층 가공<sup>25</sup>(Additive Manufacturing),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분야의 혁신센터를 구축
- 업종별 기초기술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상용화, 인재육성 등을 추진

24) 지능형 생산 시스템(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은 21세기 제조 환경의 지능화, 고품위화, 통합화, 쾌적화를 통해 국제화에 대응하고 인간과 기계, 환경이 융합되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함.(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5) 적층 가공은 입체(3D) 프린팅을 일컫음.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원료를 여러 층으로 쌓거나 결합시키는 입체(3D) 프린팅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모든 입체(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원료를 층(layer)으로 겹쳐 쌓아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냄.(자료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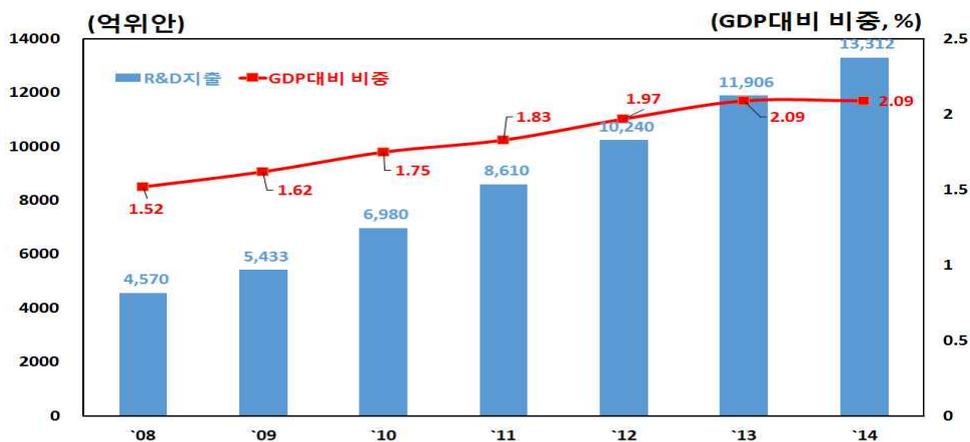
○ 제조업의 기초 기술 및 역량을 강화

- 기초부품, 기초공법, 기초소재, 기초산업기술 등 ‘4개의 기초(四基)’ 역량 부족으로 중국 제조업 혁신이 더디게 진행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
-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40%, 2025년까지는 70%로 제고할 계획
- 항공우주장비, 통신설비, 발전·송전·변전설비, 건설장비, 교통장비, 가전제품 등 부문에서 기초부품 및 소재를 적극적으로 응용

○ 최근 들어 혁신력 강화를 위한 R&D 규모가 확대

- 정부의 혁신강화 전략에 따라 R&D 지출은 2008년의 4,570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1조 3,312억 위안으로 3배 증가
- 이에 따라 유인 우주선, 달 탐사, 유인 잠수함, 대형 LNG 선박 등 첨단 산업의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

그림 2 중국 R&D 지출규모 및 비중(2008-2014)



자료: 중국 공업원, 「제조강국 전략연구보고」

## □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도모 및 확대

### ○ 주요 제조업 및 공정과정에서 지능형 생산 시스템(IMS)을 구축

- IT와 제조업의 융합에서 IMS는 주요한 발전 방향이며, 산·관·학 협력을 통해 지능형 제품과 스마트 설비를 개발 및 상용화할 계획
- 핵심 공정 지능화, 로봇의 핵심 노동력 대체, 생산 과정 지능화 등 중요 분야의 공장 및 작업현장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
- 인프라 및 수요가 충분한 중점 지역·업종·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제조, 개별 제조, 스마트 설비, 지능형 관리, 지능형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적용할 계획

### ○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시설을 확충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의 광대역 보급률이 38.79%로 가장 높고, 한국은 38.04%로 2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13.9%로 낮은 순위를 차지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2020년까지 광대역(유선 기준) 사용자수를 4억 명, 광대역 가정 보급률을 70%까지 제고시킬 계획<sup>26)</sup>이며, 2025년까지는 동 보급률이 82%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

## □ 제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를 창출

### ○ 2010년 이후 중국은 제조업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품질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부족

-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주요국의 수출상품 리콜 지수(2012년 기준)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낮음을 지적

26) 国务院, 《“宽带中国”战略及实施方案》, 2013.8.17.

- 미국의 리콜 지수는 0.043, 독일은 0.038, 일본은 0.023에 그치나 중국은 0.285로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차이로,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가 높음을 의미

○ 이에 따라 주요 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행동계획을 실시

-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고정밀 수치제어기, 궤도교통설비, 대형장비, 공정기계, 특수설비, 핵심 원자재, 기초부품, 전자부품 등을 포함

○ 산업집중도를 높여 자체 브랜드를 창출 및 발전

- 최근 기업간 M&A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산업에서는 산업집중화 현상이 나타남.
- 자동차 산업은 1~10위 기업의 생산량이 전체의 90%, 시멘트는 전체의 37.8%, 평면유리는 전체의 53.5%, 전해 알루미늄은 전체의 68%를 차지<sup>27)</sup> 하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
- 한편, 중국정부는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포함된 중국기업이 36개(2013년)에 불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
- 이에 따라 중국기업 제품이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육성 관련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계획

□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조업을 전면적으로 육성

○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

- 선진화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기술·공법·설비 등의 R&D를 확대하고 제조공장의 친환경화를 적용 및 확대
- 전통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생산, 수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sup>27)</sup> 자동차산업은 2014년 6월, 시멘트, 평면유리, 전해 알루미늄은 2013년 기준임.

방지, 재활용 등을 추진

- 중점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산 확대 계획을 실시
  - 친환경 제품, 친환경 공장, 친환경 공업단지, 친환경 기업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 평가를 실시
- 특히, 과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전통 제조업 생산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
- 철강, 유색금속, 화학공업, 전자재, 경공업, 염료산업 등 전통 제조업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추진
  - 주조, 단조, 용접, 표면처리, 절삭(커팅) 등 가공 제조공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해(유독) 원료 대체제를 사용하고 고품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중금속오염물 배출량 감축 및 탈황·탈진설비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 □ 3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5%대로 폭락

○ 2015년 3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6%로 전월대비 1.2% 포인트 하락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

- 그중 광업은 3.2%, 제조업은 7.2%, 전력·가스·수도는 2.3%를 각각 기록, 전월대비로는 광업과 전력·가스·수도는 각각 1% 포인트, 1.7% p 씩 하락 하면서 전체 공업 증가율 하락을 유도, 제조업은 0.3% p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은 편

- 1/4분기 지역별로는 산시(山西)와 랴오닝(遼寧) 등이 -2.9%와 -5.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베이징(4.5%)와 상하이(0.6%), 저장(浙江;2.1%)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 그러나 충칭(10.5%), 시창(西藏;14.9%) 등은 여전히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심함.

○ 3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국면을 시현

- 소재산업에서는 지난 달과 유사하게 화학섬유(9.9%)와 플라스틱원료(7.5%)만 공업 평균치를 상회하였고, 플라스틱제품(-2.1%), 선철(-2.4%), 조강(-1.2%)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기계설비에서는 소형 트랙터가 -20.3%로 지속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속절삭기계(-7.0%)도 마이너스 성장에 합류, 발전설비(12.9%)는 지난

달의 부진에서 벗어나 고성장세로 전환

- 자동차는 3.5%로 전년에 비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을 완료한 조선산업은 22.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전자에서는 컴퓨터(-17.9%), 핸드폰(-10.4%), 냉장고(-9.0%), 컬러TV(-2.4%) 등 주력 제품들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10.8%)만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
- 고용 상황의 악화와 경기의 전반적 부진으로 소매업 증가율은 10.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도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
- 음식숙박업은 11.5%로 전월대비 0.3% p가 상승하면서 최근 수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전년동기비, %)

업종별	2014년			2014/2015년				
	1/4분기	상반기	연간	11월	12월	1-2월	3월	
공업 전체	8.7	8.8	8.3	7.2	7.9	6.8	5.6	
섬유	섬유사	6.3	8.7	5.6	0.5	2.4	5.9	0.2
	방직	2.7	3.0	-0.5	-2.4	-5.3	4.6	1.4
	화학섬유	4.8	7.5	6.4	6.2	7.8	10.6	9.9
화학	에틸렌	5.3	5.3	7.6	-6.4	6.4	5.7	2.5
	플라스틱원료	9.2	11.5	10.3	5.5	5.7	12.9	7.5
	플라스틱제품	6.2	6.4	7.4	5.7	5.3	6.1	-2.1
철강	선철	0.1	0.5	0.5	0.9	3.7	0	-2.4
	조강	2.4	3.0	0.9	-0.2	1.5	-1.5	-1.2
	강재	5.3	6.4	4.5	1.2	6.4	2.1	3.6
비철금속	6.7	5.4	7.2	7.9	15.4	6.8	6.6	
기계	금속절삭기계	7.8	5.0	3.0	0	0	6.1	-7.0
	소형 트랙터	-6.9	-11.1	-13.9	-15.2	-22.1	-11.5	-20.3
	대기오염방지설비	6.9	14.2	11.9	8.6	16.4	21.1	4.8
	발전설비	30.0	2.9	9.2	0.2	5.7	-0.6	12.9
자동차	10.8	10.9	7.1	2.6	3.7	4.6	3.5	
조선	-16.2	0.2	5.5	19.5	3.0	15.4	22.6	

전자	세탁기	-3.5	-3.6	-3.3	-6.4	3.9	12.2	6.6
	냉장고	1.2	0.7	-1.0	-6.8	-6.3	1.0	-9.0
	에어컨	19.9	16.3	11.5	8.2	0.1	-7.0	2.9
	컬러TV	8.5	12.6	6.2	-6.5	-6.7	9.2	-2.4
	컴퓨터	2.6	7.5	-3.1	-11.6	-13.6	-9.7	-17.9
	반도체	4.2	9.2	12.9	14.9	25.6	12.3	10.8
	핸드폰	14.7	14.0	7.5	-0.3	7.8	6.1	-10.4
서비스	화물운수	7.4	7.5	7.1	7.1	-	9.2	-2.5
	여객운수	1.6	2.5	3.9	5.2	-	-3.2	9.2
	우편 <sup>3)</sup>	35.1	35.1	35.6	35.2	35.6	30.5	-
	통신 <sup>3)</sup>	15.2	15.1	16.1	15.6	16.1	21.6	-
	소매업	12.2	12.4	12.2	12.0	12.1	10.7	10.1
	음식숙박업	9.8	10.1	9.7	9.8	10.1	11.2	11.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 주 :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 관방치는 현상 유지, 민간치는 계속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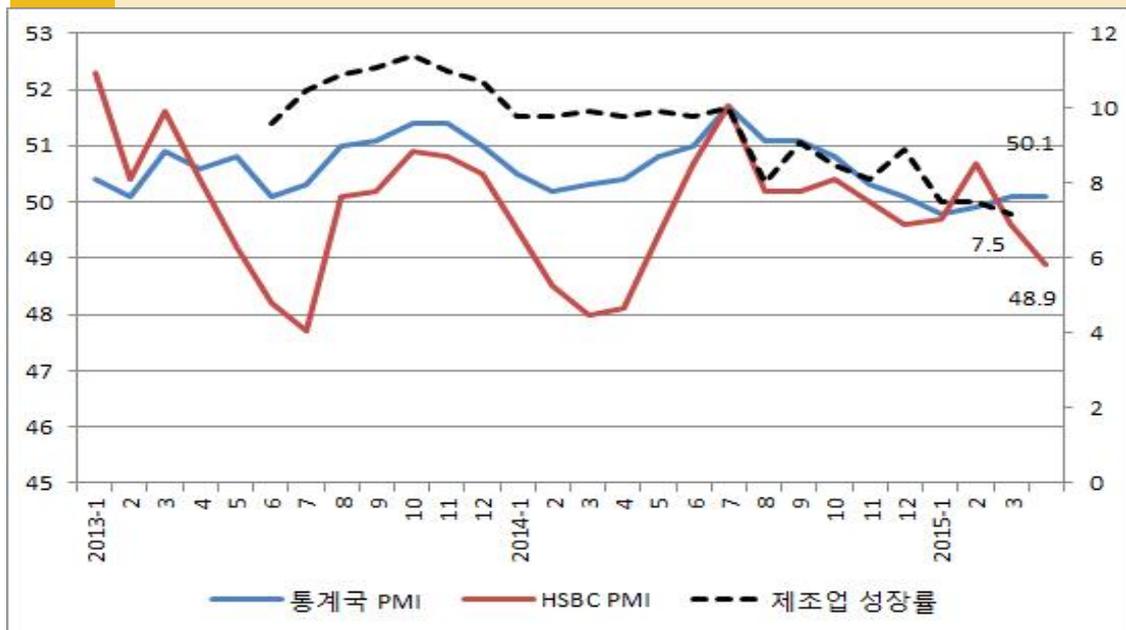
- 4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50.1로 전월과 동일, 두 달째 확장국면을 시현하고 있으나 대외 신규수요가 위축되면서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6으로 전월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형기업(49.8)과 소형기업(48.4)은 전월대비 모두 1.5 P 상승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체감 격차가 축소
  - 생산지수(52.6)는 전월대비 0.5 p 상승하여 생산이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 반면, 신규주문지수(50.2)는 전월과 동일, 원자재재고지수(48.2)는 전월대비 0.2 p 상승
  -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8.1로 전월대비 0.2 p 하락, 수입지수는 47.8로 전월대비 0.3 p 하락하는 등 모두 임계치 이하로 대외경제 여건이 계속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종업원지수는 48.0으로 전월대비 0.4 p 하락하여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

움을 시사, 제품재고지수는 48.0으로 전월대비 0.6 p 하락

○ 한편, 4월 HSBC(汇丰) PMI지수는 48.9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

-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
- 신규주문지수는 최근의 불황을 반영하여 응답자들이 비관적으로 대답하고 있으며,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상향되었으나 상승 폭이 미미
- 수요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신중해지고 있으며, 제품재고 지수도 상승세를 시현
- HSBC 전문가는 중국 제조업이 피로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신규 수요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종업원 고용과 부품조달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따라서 7%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Markit, HSBC([www.markiteconomics.com](http://www.markiteconomics.com))



## □ 중국 지역별 1/4분기 경제지표 발표

○ 올해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칭(重庆)이 10.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최근 발표된 중국 지역별 1분기 경제지표에 따르면, 31개 지역 가운데 18개 지역이 중국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충칭, 구이저우(贵州), 시짱(西藏, 티베트) 3개 지역은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함.

-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제성장률은 6.8%, 6.6%에 그침.

-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광둥(广东)성으로, 1분기 1조 4,900억 위안의 지역총생산을 달성했으며, 그 다음으로 장쑤(江苏)성 1조 4,600억 위안, 산둥(山东)성 1조 2,900억 위안을 기록

○ 특히 동북3성은 2014년도 가장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모두 중국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랴오닝(辽宁)성은 1.9%로 31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헤이룽장(黑龙江)성은 4.8%, 지린(吉林)성은 5.8% 성장률을 나타냄.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중국기업연구센터(中国企业研究中心) 리우수

웨이(刘姝威) 주임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동북3성의 경제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보며, 경제구조의 전환, 기업제도의 개혁, 반부패 등이 추진되면서 동북3성의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표 1 2015년 1분기 중국 지역별 GDP와 성장률



○ 장강중류도시군(长江中流城市群), 징진지 통합발전전략(京津冀一体化战略) 등 국가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지난해 말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지역이 모두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보임.

- 장강경제벨트와 연관된 11개 지역은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충칭, 구이저우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 외에, 장쑤(江苏),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도 모두 8%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함.

- 징진지 통합발전전략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텐진(天津)과 허베이(河北)가 특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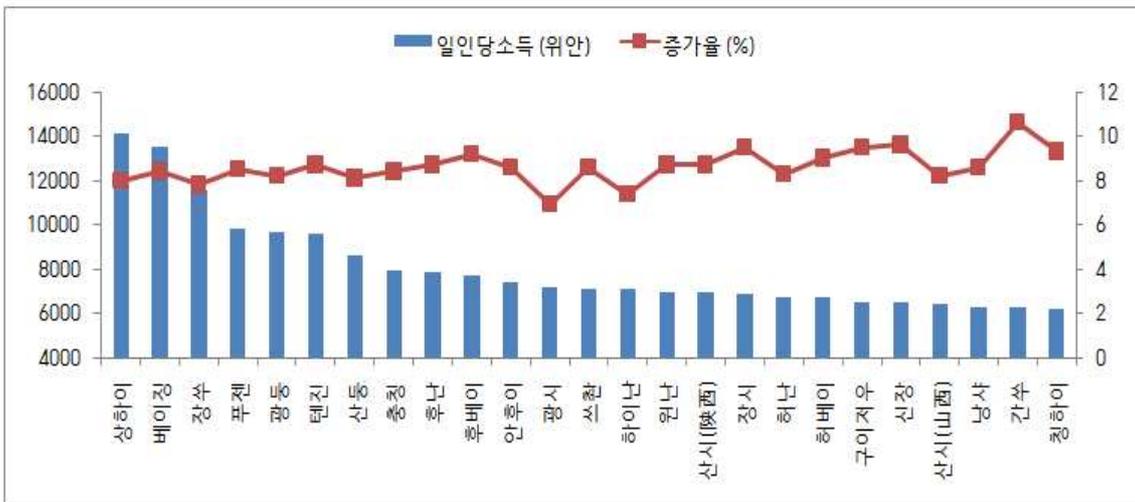
- 허베이의 경제성장률은 6.2%로 작년 1분기 중국내 성장률 순위 30위에서 올해 26위로 도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p 상승해 중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텐진시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9.3%로 성장률 4위를 차지했으며, 항구, 인

프라 투자 등 방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베이징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6.8%로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했지만, 경제구조 면에서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률이 15.3%에 달하고, 금융업, 정보산업, 기술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 등 구조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2 2015년 1분기 중국 지역별 일인당 소득과 증가율



○ 1분기 중국의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3% (실질 성장률 7.0%) 증가한 8,572위안으로 나타남.

- 최근 소득 통계가 발표된 25개 지역 가운데 상하이가 14,153위안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6%를 기록한 간쑤(甘肅)성이 차지함.
- 중국에서 일인당 소득 1만 위안 이상을 실현한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장쑤 3개 지역으로, 베이징의 일인당 소득 수준은 13,503위안, 장쑤성은 11,516위안에 달함.
- 중국 평균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지닌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장쑤, 푸젠(福建), 광둥, 텐진, 산둥 등 7개 지역임.
- 25개 지역 가운데 칭하이성이 6,212.87위안으로 최하위를 기록

## □ 중국, 중앙국유기업에 대해 대규모 재편 추진

- 중국의 양대 고속철제조업체인 중국난차(中国南车, CSR)와 중국베이차(中国北车, CNR)의 합병 이후, 중국의 주요 중앙국유기업(이하 중앙기업) 합병 소식이 잇달아 나오고 있음.
  - 작년 11월, 중국화푸(中国华孚, Sinofu)가 중국 최대 식품업체인 중량그룹(中粮集团, COFCO)에 인수합병되고, 12월 말 중국난차와 중국베이차가 합병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중국원자력발전기술회사(国家核电, SNPCT)와 중국전력투자그룹회사(中电投, CPI)도 합병에 나서면서 중앙기업 합병 붐이 이슈로 떠오름.
  - 중국난차와 베이차의 합병은 주식 폭등을 가져오면서 특히 주목을 받음. 두 기업의 A주 총시가는 합병 발표 이전 1,500억 위안에서 불과 4개월만에 8,545억 위안으로 증가함(4월 22일 기준).
  - 중앙국유기업의 합병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강조한 장비제조업의 해외 진출 추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외 수출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가 발행하는 월간지 《국자보고(国资报告)》에 따르면, 2003년~2014년 중국 중앙기업 수는 196개사에서 112개사로 감소함.
  - 특히 2008년~2009년 사이에 중앙기업 합병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중앙기업의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업계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대규모의 국유기업 합병 및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기업 재편을 통해 112개사에서 30~50개사로 중앙기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중앙기업의 합병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반적 산업화 수준을 높이고, 중국 제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이루어 중국 제조기술 수준과 브랜드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임.

- 중앙기업의 재편은 주력산업 중에서도 기업의 산업집중도가 낮고, 생산력 과잉 문제가 존재하거나 경쟁력이 미흡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 합병이 추진된 중국난처와 베이처, 중국전력투자그룹과 국가원자력기술회사는 모두 중국 전략산업의 리더 기업으로,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악성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합병의 주요 목적임.
  - 아르헨티나 사업 수주 과정에서 중국베이처는 239만 달러, 중국난처는 127만 달러로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결국 중국난처가 낙찰된 바 있음.
  - 2014년 상장 중앙기업 145개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30곳을 넘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귀뤄예(中国铝业)의 적자규모는 163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함에 앞서 중앙기업의 합병을 통해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 중앙기업이 선두지위에 있는 분야는 건축사업, 금속제품, 은행업, 원유 채굴, 선박업, 정유업 등 소수에 불과하며, 그 외 45개 산업 분야에서는 모두 하위에 속해 있어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일대일로 전략으로 국제 경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교통운수 관련 산업, 인프라시설 건설, 에너지 관련 건설산업, 상품무역 및 문화관광업, 정보산업 등에서 중앙기업 재편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 징진지 통합발전규획 통과, 부동산·건설·환경산업 수혜

- 4월 30일, 시진핑 중국주석의 주재 하에 개최된 중국정치국(政治局) 회의에서 《징진지통합발전규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정식 통과
- 2014년 2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징진지 통합발전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

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일 년여 만에 징진지 발전규획이 통과됨.

- 징진지 전략은 뉴노멀시대 중국의 중대한 정책적 조치로서, 궁극적 목적은 베이징의 非수도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경제구조와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데 있음.
  - 징진지 전략은 △베이징의 경제기능 분산 △도시간 교통인프라 연계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징진지 전략을 통해 베이징의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산업을 베이징 교외지역이나 허베이(河北), 텐진(天津) 등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은 주로 저부가가치의 경제적 과급효과가 낮은 경제 부문과 시장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공공부문을 말함.
  - 베이징은 비수도기능 분산에 대한 중장기 목표에 대해, 2020년까지 베이징의 상주인구를 2,300만 명 수준으로 통제하여 과도한 인구밀도에 따른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2030년까지 지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징진지 지역의 통합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이라고 제시함.
- 교통 방면에서는 최근 징진지 교통일체화를 위한 실시방안이 논의되어 곧 국무원에 보고될 예정으로,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이르면 연내에 교통카드 통합, 물류정보플랫폼 구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징진지 각 지방정부와 중국철도총공사(中国铁路总公司)가 3:3:3:1 비율로 공동 설립한 ‘징진지도시간철도투자유한회사(京津冀城际铁路投资有限公司)’가 올해 3월 베이징시 공상국에 이미 공상등록을 마친 상태로, 향후 징진지 도시간 철도사업 투자, 건설공정, 자산관리, 부동산개발, 토지관리 등을 맡게 될 예정임.
  - 베이징교통위원회가 제정한 《2014-2030년 베이징교통발전강요(北京交通发展纲要2014-2030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징진지에 9,000km의 고속

도로망을 구축해 주요 도시간 3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9,500km의 철도망과 주요 도시간 이동거리 1시간대의 도시철도교통권을 조성할 계획임.

- 베이징지하철(北京地铁)은 6호선, 다싱(大兴)선, 팡산(房山)선을 더 연장하여 허베이성의 옌지아오(燕郊), 구안(固安), 쥬저우(涿州)까지 지하철을 운행할 계획임.
- 징진지 전략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간 요소시장 통합으로, 이를 위해 징진지 지역간 공공서비스의 일체화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며, 공공서비스 일체화의 핵심은 환경보호에 있음.
  - 작년 베이징환경위생그룹(北京环卫集团)은 허베이성과 협정을 맺고, 장자커우(张家口)와 구안에 ‘수도 표준(首都标准)’의 환경관리 경험을 전수하고 있음.
  - 그 동안 허베이와 텐진은 ‘국가표준(国家标准)’을 환경보호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징진지 전략으로 인해 향후 이보다 더 엄격한 ‘수도표준’으로 통일할 전망이다.
- 징진지전략은 부동산, 건축업, 환경산업에 막대한 투자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 현재 징진지 지역의 도시교통 상호연계성은 장강삼각주나 주강삼각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수도공항 이용률은 96%에 달하는데 반해, 텐진공항의 이용률은 50%에 불과하고, 스좌좡(石家庄)공항 이용률은 28%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징진지는 중국에서 환경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으로, 최근 환경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대 도시 가운데 징진지 도시가 8개에 달함.
  - 인구이동과 산업 이전에 따른 건설 수요와 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시

장 확대에 부동산 업체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허베이와 텐진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 예로 서우창부동산(首创置业, Beijing Capital Land)이 연초 체결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지역 분포 중 텐진의 비중이 33%로 베이징(2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4대 자유무역구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5월 8일부터 실시

○ 4월,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의 출범과 함께 상하이 를 포함한 4대 자유무역구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가 발표됨.

- 4월 20일, 국무원이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가 5월 8일부터 정식 실시됨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분야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은 내국인과 동일한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됨.

-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국민경제산업분류(GB/T4754-2011)’에 따라 15개 산업분류, 50개 조항, 122개의 특별관리조치로 구성됨.

- <2015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과 비교했을 때,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리스트는 18개 분야의 제한 규정을 취소 또는 완화하여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함.

○ 4대 자유무역구에 적용되는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실시했던 기존 규정에 비해 투자제한 범위가 축소되어 자유무역구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임.

-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행했던 2014년도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은 18개 분류와 139개 관리조치로, 2013년도에 비해 51개 제한조치가 줄어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개방 효과를 가져온 조치는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이번에 새로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는 2014년도에 비해 더욱 큰 폭의 대외 개방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됨.
- 산업분류 가운데 건축업과 부동산업은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채광업에 대한 제한조치는 2014년도 14개에서 8개로 감소함.
- 제조업은 개방조치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분야로, 상하이자유무역구 2014년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46개 조항에 달했던 제조업 관련 조항이 17개로 대폭 감소함.
  - 현재 제조업 가운데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산업 분야는 항공제조,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도시교통설비제조, 통신설비제조, 광산-제련과 압연가공, 의약품제조(중의약재 관련)임.
- 서비스산업 부문에서는 교통운수, 금융업,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두고 있음.
  - 금융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 분행은 대리발행, 지불대행, 정부채권 수탁판매, 대리 출납,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국민에 대해 100만 위안 이하의 정기예금 외 다른 내국민 대상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없음.
  - 선물회사와 증권사, 보험회사의 설립은 투자 제한에 포함되어 외자기업의 지분 비율 제한 규정이 있음.
  - 증권사와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설립 시, 외자의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인 경우 50% 이하, 그 외에는 국내 보험회사의 합계 보유 지분이 보험자산관리회사의 75% 이상이어야 함.
- 문화·체육 및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는 라디오TV 방송, 통신/신문출판, 영화제작 및 발행, 문화예술공연단 설립 등을 투자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외합작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실시하며, 영화관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측 지분 통제를 조건으로 함.
  - 영화 상영시,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국산 영화와 수입영화의 연간 방영 시간 비율을 준수해야 함(국산 영화 상영시간이 총 시간의 2/3 이상).
  -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출판 및 제작업무 경영에 대한 투자도 금지 항목으로 남아있음.
- 외자 의료기관은 제한류로 분류되어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기업은 중국 내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음.
- 학제로 운영되지 않는 직업기능훈련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이나 기타 단체 및 개인의 독자 설립이 가능함.



# 중국 의료시장의 발전 추이와 한국의 진출 기회

북경평행세계 부사장 최창환

## 1. 중국 의료시장의 발전 전망

### □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8%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7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건강서비스시장은 8조 위안(약 1.29조 US\$)에 달할 것임.<sup>28)</sup>

- 중국 GDP 중 위생총지출비는 2000~2013년간 약 7배 증가

### □ 중국 의료시장 진출 환경의 변화

구분	이전	현재
정책	외자 진입장벽 및 민영병원 관련 각종 차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자병원의 진입장벽 완화 및 민영병원 관련 차별정책 폐지.</li> <li>다수의 지방정부/의료특구에서는 민영병원(외자병원) 설립 장려 및 적극 유치</li> </ul>
고객의 의료 서비스 수요	공공의료, 임상의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li> </ul>

28) Dorenfest Market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고급/Wellness 의료서비스 및 신수요 과목(재활, 성인병 등)에 대한 증가폭은 더욱 큼.</li> </ul>
경쟁 환경	소수의 민영병원(대부분 소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화/대형화 되고 있음.</li> <li>타이완, 싱가포르, 미국 등 다수의 외자병원 진출</li> </ul>
병원의 외국과의 합작수요	수요 높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의료기술/브랜드 등에 대한 수요 대폭 증가</li> <li>특히 민영병원은 우수 의료 인력소싱 및 브랜드화가 힘들어 외국 의료기관과 합작 수요 비교적 큼.</li> </ul>
투자환경	자력으로 자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드만삭스 등 Global IB 를 포함 다수의 금융기관 및 제약회사, 병원투자전문회사 등이 병원사업에 적극 투자</li> </ul>

## □ 외자병원의 증가

표 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중국 진출 현황 비교

구분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 베이징SK아이캉병원, 상하이Ruili병원을 기점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li> <li>2014년 기준 42개의 의료기관이 진출</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무지아 1997년 설립 : 15개 의료기관 운영,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자병원, 최고가 병원</li> <li>최근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ayo Clinic 등 유명 대형병원 본격적 진출 시작</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8월 기준 22개 병원 진출, 대부분 중대형 병원, 일부는 독자병원</li> <li>창경병원: 타이완 최대 병원, 샤먼시에 2,000병상 병원 운영, 베이징에 칭화대학과 합작병원 설립</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둥성을 중심으로 소형 클리닉, 대형병원 등 다수의 병원 진출</li> <li>동관동화병원: 1994년 설립, 1,100병상, 중국민영병원 경쟁력 1위</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명 민영병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li> <li>Parkway: 9개의 의료기관 운영, 상하이국제의학센터 위탁 운영(예정)</li> </ul>

□ 이러한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예정

○ 중국 정부의 의료/건강산업 육성 정책, 의료특구 개발 계획, Major 의료그룹의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는 현 기조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 [건강서비스업 발전을 촉진시킬 일련의 의견]에서,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을 8조 위안 (약 1.29조 US\$) 이상의 규모로 발전시키겠다는 지표를 포함한 정책방향 발표

※ 중국 위생부(위계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 중국 2020 전략”을 발표했으며, 주요 목표는 의료위생서비스 및 보건 수준을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상위권까지 올리고, 동부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발전시키는 것임.

- 2003년 상하이국제의학 Park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의료특구를 개발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의 주요 의료특구 및 하이난보아오 국제의료관광선행구 등 휴양지 내의 주요 의료관광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임.

※ 일부 의료(관광)특구의 우수 의료기관 유치와 이의 클러스터링 효과로 선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중국의 Major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인 확장 추진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하이엔드 타깃의 기관은 1~2선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고, 일부 매스 타깃의 기관은 이미 3선도시까지 확장, 주요 Major 의료기관들의 내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0년 경에는 상당수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표 2 주요 민영 (체인화) 의료기관의 확장 현황

타깃	병원명	과목	총수		체인/분원 분포				5개 도시 집중도	
			의료기관	진출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선전/텐진	기타	합	비율
고가	허무지아	종합병원	15	5	8	4	2	1	14	93%
	AM	부인/	3	2	2		1		3	100%

	Care	소아								
중고가	이메일	성형/ 피부	11	6	5	2	1	3	8	73%
	즈밍	건강 검진	55	26	16	3	7	25	26	47%
	아이캉 구오빈		36	12	8	10	7	11	25	69%
	루이얼	치과	24	7	7	8	7	2	22	92%
Mass	따지엔 캉	건강 검진	130	55	7	11	13	99	31	24%
	아이얼	안과	50	44	1	1	3	45	5	10%

자료: KITA 등

## □ 2020년 이후에는 시장의 성숙 등으로 신규 진입이 힘들어 질 것

○ 2020년 후에는 정책기조와 시장진입장벽 등으로 진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큼.

- 과거 중국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외국기술의 개방적 정책을 통해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을 시 정책방향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개방적 정책 기조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이후에는 다수의 의료특구의 오픈 및 민영 의료기관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신규 진입 시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임.

## 2. 중국 의료시장 진출 시 고려 사항

### □ 포지셔닝 (과목선택 및 수가)

○ 대도시의 경우 일부 의료서비스는 이미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 수요는 크나 공급이 적은, 혹은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과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

- 중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으며, 고령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대표적인 과목으로는 성인병, 노인 관련 의료, 재활서비스 등이 있음.

표 3 상하이시의 재활인력 현황 (2012)

구분	숫자	중국 위생부 표준		국제 표준	
		표준	도달도	표준	도달도
의사	585	1,073	55%	2,000	29%
치료사	754	2,145	35%	11,500	7%
간호사	429	1,006	43%	6,900	6%
전체	1,768	4,224	42%	20,400	9%

자료 : 상하이시 재활의료자원 조사보고

- 이미 경쟁이 본격화된 과목으로 진출할 경우 관련 특수클리닉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
  - 중국의 의료비용 분야 의료기관은 많이 공급되었으나, 체형관리, 안티에이징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부족, 최근 검진센터도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곳은 극소수
  - 기존 경쟁이 치열한 과목의 경우 특수클리닉을 통하여, 차별화 및 하이엔드 포지셔닝이 가능함
- 외자 기관은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포지셔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차별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
  - 허무지아 (미국), Parkway (싱가포르), 허신 (타이완) 등 다수의 외자기관은 하이엔드 시장을 타깃으로 진입.
  - 중산층 이상의 Healthcare/Wellness 등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29)고급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0만 명, 시장규모는 연 2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나, 관련 공급

29) Sina,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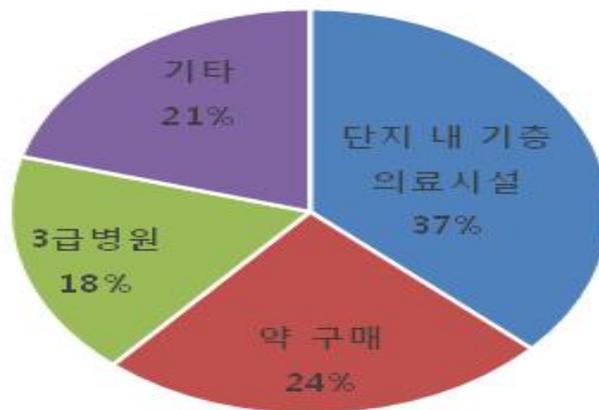
은 부족함

## □ 브랜드

○ 중국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의료인력 수준의 편차가 커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형공립병원을 선호

- 기층의료시설 의료진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감기 등 작은 질병의 경우에도 기층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하고 더 많은 수가 3급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
- 과장광고 및 지나친 상업화 행위, 낮은 수준의 의료진 등으로 인해 민영 병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음.

그림 1 작은 질병 시 선택하는 의료기관



자료: 베이징시 통계국

○ 신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민영병원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

- 다수의 민영병원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푸지엔성 계열 민영병원들의 2013년 바이두 키워드검색 광고지출 약 120억 위안으로 추정<sup>30)</sup>

30) 每日经济新闻

○ 외자병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적절한 포지셔닝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 내자계 민영병원 보다 외자계 민영병원은 절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순위 Top10에서 50%를 차지

- 허무지아, Parkway 등 다수의 외자계 병원들이 하이엔드 포지셔닝에 성공

표 4 중국 민영병원 경쟁력 순위 (2012년)

순위	병원	지역	자본
1	둥관 등화병원	광둥	합자 (홍콩)
2	루오양 중심병원	허난	내자
3	쭈첸 인민병원	장쑤	
4	우한 아시아심장병병원	후베이	
5	쭈저우 지우룽병원	장쑤	합자 (홍콩)
6	샤먼 창경병원	푸젠	합자 (타이완)
7	난징 민지병원	장쑤	
8	베이징 허무지아병원	베이징	합자 (미국)
9	광둥 썬지우뇌과병원	광둥	내자
10	찬청구 중신병원		

자료: 중국병원협회

## □ 상권 선정

○ 중국 의료기관의 타깃 상권은 전국부터 근린까지 다양하므로 적절한 타깃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

상권	크기	비고
전국	한국의 약 100배	베이징의 일부 유명 공립병원들은 전국에서 환자가 옴.
광역경제권/성	베이징/톈진/허베이 광역경제권의 면적은 한국의 약 2배, 인구는 약 1.5억	성급 대형병원의 경우 광역경제권/성 내에서 환자가 쏠림.
도시	베이징시 면적은 ‘서울+경기도’의 약 1.5배	시급 대형공립병원의 경우 시 전역에서 환자가 옴.

		중국도시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농촌 지역이 존재
도시 내 도시지역	베이징시 도시화 면적은 서울보다 큼.	
구	베이징 시 차오양구의 면적은 서울의 약 80%	
근린	-	보건소 위주, 의원급 민영의료기관은 치과/중의과 등을 제외하고는 소수, 최근 근린상권 중심의영리성 Family Care Center 증가 기미

### ○ 중국 도시의 특징

- 중국 도시 내에는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큰 농촌 지역이 존재  
 ※ 2013년 기준 인구 200만 이상 도시 중 1인당 GDP가 12,000 US\$ 이상인 곳은 약 30개(도시지역 인구를 약 100만 이상이라고 가정)
- 도시 내 신도시 혹은 개발구의 다수는 개발 초기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업환경이 성숙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발전전망을 동태적으로 판단해야 함.

### ○ 입지 선정 시 유의점

- 상권의 범위 및 상권 내 경쟁자를 파악하고 수요(고급 아파트, 고급 오피스 등) 및 의료서비스 구매 행태, 접근성은 물론이고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동태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선정을 해야 함.
- 기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의 주요 상권에는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나 수요도 가장 큼.
-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자는 적고 인허가가 용이하나 거주자가 기존 도시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3.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

#### □ Family Care Center

○ 중국의 민영 1차 의료기관은 중의과, 치과 위주였으나, 최근 Family Care Center 성격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과거 Family Care Center 의 타깃은 외국인 위주였으나, 향후 중국인 고객 대상 Family Care Center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의사의 복수 병원 회진, 공립병원 의사 개원, 1차 의료기관 강화, 공립병원-민영병원 간 협력 등 관련 정책 환경이 개선
- 유명병원 출신 Pay Doctor 증가, 개원을 희망하는 공립병원 의사 증가
- 부동산개발회사의 분양가 상승을 위한 의료기관 유치 희망

#### ○ 사업모델

- 대도시 내 하이엔드 주거단지에 거주민의 수요가 많은 과목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 개설 (복수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
- 주요 과목: 가정의학과, 내과, 부인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재활, 양로 (거주형)

#### □ 휴양지 내 건강관리센터

○ 중국에는 약 380개의 유명 관광지가 있으며 (4A급 + 5A급) 최근 상당수의 관광지 및 휴양시설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추진 중

- 중국 휴양지 내 건강관리센터는 2013년 국무원이 하이난보아오국제의료관광선행구(이하 하이난의료관광선행구)를 지정하며 본격화됨.
  - ※ 하이난의료관광선행구의 전체 토지규모는 20평방킬로미터이고, 2017년 1기가 완공될 예정임. 하이난성 정부는 하이난 관광객(2014년 약

4천 7백만명)의 약 10%를 하이난의료관광선행구에 유치할 계획

- 유명 휴양지에는 부유층의 별장촌이 조성되어 있고, 요양센터 등이 있으므로 단기 체류 관광객 이외에 장기체류고객의 확보도 가능
- 휴양지가 필요로 하는 의료/건강서비스는 대부분 재활, 요양, 의료미용, 건강검진/관리 등 한국 의료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임

#### ○ 사업모델

- 중국 유명 관광지 혹은 대도시 근교 휴양지에서 추진 중인 건강관리센터와 합작
- 주요 과목: 건강검진, 피부과, 안티에이징, 재활, 성인병관리, 중의(한방), 요양

#### □ 재활/양로 기관

- 과거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임상 위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이의 일환으로 재활의료도 본격적으로 육성 중임
  - 2009년 “의약위생체제 심화개혁 관련 의견(关于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意见)”에서 예방/임상/재활의 결합 강조
  - 2012년 “재활병원 기본표준(康复医院基本标准)” 및 “12차 5개년기간 재활의료사업 업무 지도의견 (十二五时期康复医疗工作指导意见)” 등을 발표하며 재활의료 분야의 관리표준과 육성/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시
-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2013년 60세 이상 인구 2억 명 돌파, 전체 인구의 약 15%)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양로와 재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고령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 2011년, 국

무원)

- 양로서비스업 가속 발전에 관한 일련의 의견(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2013년, 국무원)

○ 재활이 필요한 질병의 발병률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 제고 등으로 중국의 재활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인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관련 의료기관이 외국과 협력을 하고 있음.

**표 5** 외국계 의료기관의 중국 의료기관 협력 교류 현황

국가	진출병원(합자/합작/교류)
독일	레버쿠젠 REHA TRAINING 재활센터, Humboldt University 부속병원, 베를린병원, Mandryk 병원, MEDICAL PARK 재활병원 등
홍콩	중문(中文)대학 중의학원, 이공대학, 쩌후이(浸会)대학 중의학원, 후이리(会立)중의학원, 침구(针灸)학원 등
미국	뉴욕주립대학 RUSK 재활연구원, University of Washington 재활의학센터, 태평양재활병원 등
스웨덴	Backadalen Äldreboende in Gothenburg 병원, SKANE LUND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등
이스라엘	Raanana병원 재활센터, Loewenstein 병원 재활센터 등
일본	큐슈대학 재활센터, 熊本机能병원 등
한국	보바스기념병원 등
싱가포르	SGH(Singapore General Hospital) 등
마카오	마카오징후(镜湖)병원 등
스위스	Reha Clinic AG 등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모델

- 주거지 대상 양로재활서비스 제공 (낮병동, 재활 스테이션, 노인아파트 등)
- 민영재활병원: 특히 소아재활 등의 서비스가 부족
- 휴양지 내 재활센터

## □ 특수클리닉

- 공공의료/임상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 의료의 특징으로 인해 웰니스 분야의 특수클리닉 공급이 부족
  - 비만클리닉은 지방흡입과 중의 중심으로 발전
  - 소아과는 질병 중심으로 발전되어 성장발달클리닉 등 웰니스과목이 부족
  - 베이징, 상하이의 민영 검진센터의 약 10% 정도만이 소화기내시경 검사 진행
- 특수클리닉 개설 시 차별화, 의료기술로 인한 하이엔드 포지셔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사업모델
  - 중국 병원과 특수클리닉 중심으로 과실 합작
  - 특수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개설

## 4.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과제와 제언

### □ 자본 투자

- 한국 의료기관들은 한국의 관련 법률 및 환경으로 인해 해외 투자가 쉽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해외에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 타이완, 싱가포르 등 영리성 의료기관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 의료기관들은 영리성병원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하고 있으며, 합자법인 등 기업형 투자를 통한 중국 진출을 선호
  - 대부분 한국 의료기관들은 법률적인 제약 등으로 의료기관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컨설팅/위탁운영 등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진

### 출 방식을 선호

- 개인 투자의 경우 규모 있는 투자가 힘들고, 컨설팅/위탁운영은 장기적인 발전에 제약이 있음.
- 금융기관과의 공동 진출 등 자본투자를 수반한 진출이 장기적으로 유리
- 다수의 중국 파트너들은 신뢰성 등을 이유로 한국 파트너가 자본투자를 병행하기를 희망함.
  - 투자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 등의 참여 폭이 커짐.
  - 중국에서는 의료기관도 IPO,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Exit 이 가능함.

### □ 기업화

-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경영이 필요함.
- 중국 민영 의료기관들은 의료와 행정이 분리된 경영을 선호하고 있으며, 마케팅, 자금조달, 확장 등에서 기업화된 운영을 하고 있음.
  - 한국 같이 의료진이 직접 병원을 경영하고, 비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는 중국의 기업형 병원들과 경쟁하기 어려움.
  - 일례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 시 시장조사, 사업전략수립, 법률 검토 등을 내부 혹은 비전문적인 지인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잘못된 사업전략 수립, 리스크가 높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의료와 경영을 분리하고, 내부 전문가 채용 혹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기업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 일부 중국 민영병원, 외자병원은 Medical MBA 출신이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형 병원은 각 방면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업화된 운

영을 하고 있음.

## □ 통합적 진출

○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정보시스템, 의료장비 등이 통합된 패키지형 형태의 진출이 성공가능성이 높음.

- 성형 등 의료미용 과목 이외의 의료서비스는 중국내 브랜드가 부족함.
- 브랜드가 부족한 과목들은 고객센터/의료시스템 등을 통해 차별화 및 하이엔드 브랜딩을 모색해야 함.  
※ 모 타이완 검진센터는 중국 진출시 당일 내 검진결과 보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성을 강조하며 하이엔드로 포지셔닝
- 일례로 최근 중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급 건강관리 분야의 경우, 한국의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시스템과 같이 진출할 경우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함.

## □ 정부 지원

○ 한국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장환경, 제도 등의 이유로 인해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의료서비스의 성공적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시 시장조사, 사업전략 수립, 파트너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회사 및 의료수출전문회사의 육성이 필요